

케냐

정보수정일자: 2011. 04. 05

작성처: 나이로비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2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9

II. 경제

- 1. 경제동향 및 전망 /10
- 2. 주요 산업 동향 /12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4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6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0
 - 대한수입규제동향 /22
 - 관세제도 /23
 - 주요인증제도 /26
 - 지적재산권 /26
 - 통관운송 /2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1
- 외국기업 투자동향 /35
- 우리기업 투자동향 /3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7
- 진출형태별 절차 /42
- 투자입지여건 /46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8
- 조세제도 /49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0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54
2. 물가정보 /56
3. 바이어발굴 /58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9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60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1
7. 이주정착 가이드 /63
8. 출장가이드 /69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84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84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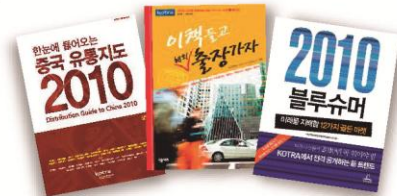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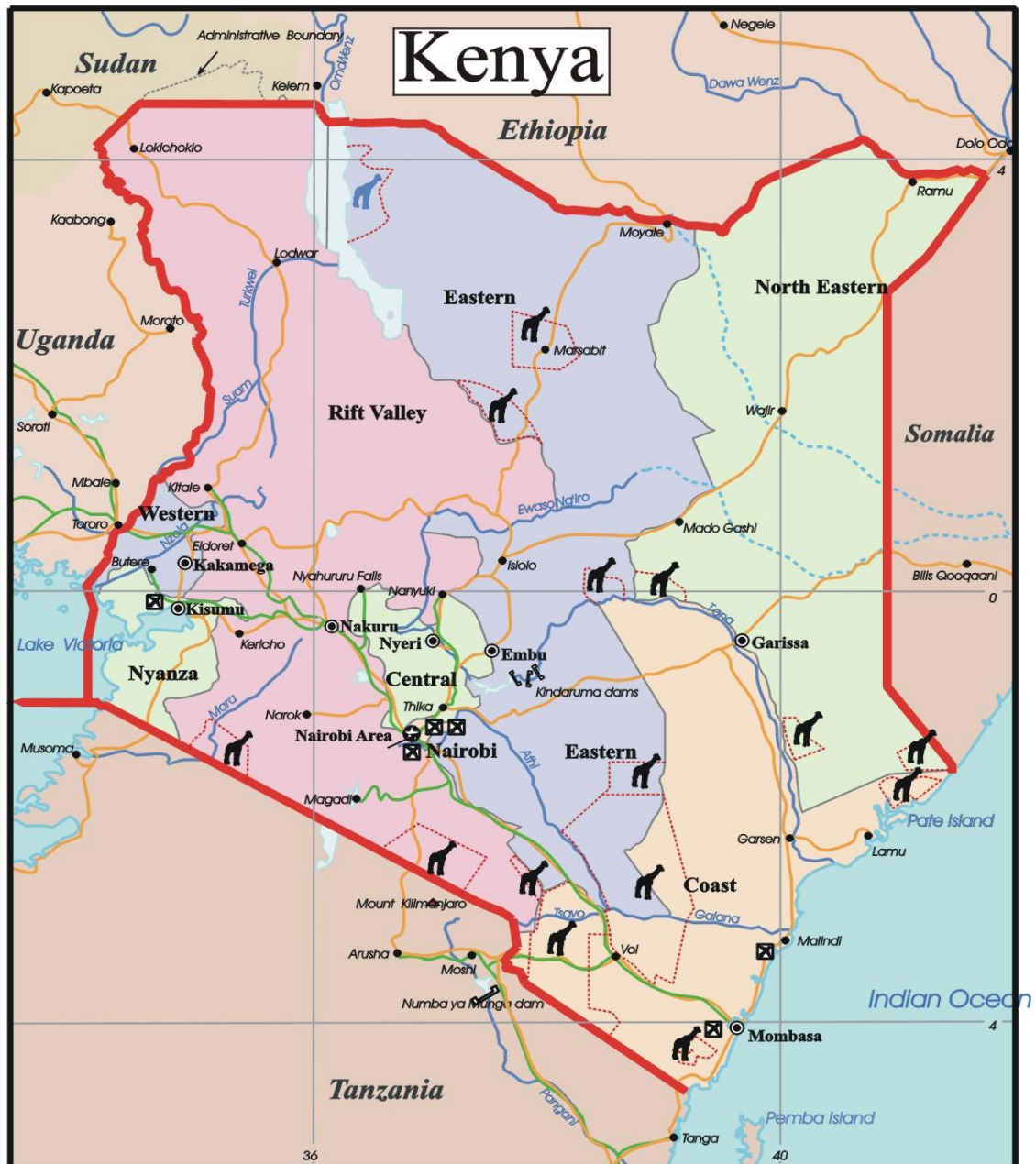
대상

500만원/年
250만원/年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
위 치	아프리카 동부
면 적	582,620 Km (한반도의 2.7배)
기 후	○ 2월이 13~28도로 가장 덥고, 7월이 11~23도로 가장 추움. ○ 4월이 우기, 8월이 건기. ○ 해안지방: 연평균 20.5~32℃, 내륙지방: 7~27℃ ○ 고원 및 서부 지방은 강우가 풍부하나 북쪽 지역은 사바나 건조 기후
수 도	나이로비 (Nairobi)
인 구	3,860만 (2009년 인구조사)
주요도시	나이로비(310만 명), 모바사(52만 명), 키수무(40만 명) 등
민 족	케냐인(흑인)- KIKUYU(446만), LUHYA(308만), LUO(265만), KAMBA(245만), KALENJIN(246만), KISII(131만), MASAI(38만) 등 43개 부족 아시아계 0.42%, 유럽계 0.15%, 아랍계 0.2%, 기타아프리카 0.3%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종 교	기독교(40%), 로마 가톨릭(30%), 이슬람교(6%), 기타(23%)
건국(독립)일	1963.12.12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실권자)	Mwai Kibaki (대통령겸 실권자) 취임일: 2007 년 12월 29일 임 기: 2012 년 7월 31일 (5년간, *신 헌법에 따라 2012.8월 대선예정)

자료: 케냐중앙통계청, EIU발행 Country Report 2011년 2월호

나. 경제지표 (2010년 기준, 추정치)

GDP	US\$309억
경제 성장률	5.0%
1인당 GDP	US\$756
실업률	25.3%
물가상승률	4.5%
화폐단위	Kenya Shilling (Ksh)
환 율	US\$1=Ksh.80.75 (년 평균)
외 채	US\$ 80억
외환보유고	US\$47억
산업구조 (% of GDP)	농림업(24.3%), 제조업(10.2%), 무역·요식업(11.2%), 운송·창고·통신 (9.8%), 정부서비스(7.8%), 기타(31.7%)
교역규모	○ 수출: US\$ 52억 ○ 수입: US\$ 106억
주요 교역품	○ 수출: 차(Tea), 커피, 원예작물, 석유제품, 시멘트 ○ 수입: 산업기계류, 원유, 차량, 철강

자료: 케냐 중앙통계청, EIU발행 Country Report 2011년 2월호

다. 한-케냐 관계

체결협정	의료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정, 항공협정
교역규모	○ 2009 년 - 대 케냐 수출: U\$ 1 억 6,465 만 - 대 케냐 수입: U\$ 557 만 - 무역수지: U\$ 1 억 5908 만 ○ 2010 년 - 대 케냐 수출: U\$2 억 3,269 만 - 대 케냐 수입: U\$924 만 - 무역수지: U\$2 억 2,345 만
교역품	○ 주요 수출품 - 열연강판, 합성수지 아연 의과/설, 타이어 및 튜브, 석유 화학 제품, 합성고무, 폴리에스테르 직물, 재봉기, 축전기 등 ○ 주요 수입품 - 차, 커피, 어류의 필레트 등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케냐 투자 (한국수출입은행 투자통계기준) - 2010 년: 없음 (신고 기준) - 1968 년~2009 년까지: 16 건, U\$3.6 백만 ○ 케냐의 대한투자는 없음
교민	792명 (2010.12월 기준) - 나이로비 지역: 약 700 명 - 몸바사 지역: 약 50 명 - 기타 지역- 약 40 명

자료: KOTIS, 케냐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행정부

1) 대통령

- 케냐는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이며 총리가 임명되어 있다.
-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국가원수 겸 군통수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총리, 내각, 국회의원 12명 등 임명권 및 국회 해산권을 보유한다.
- 대통령은 비밀 직접선거로 선출(대통령 입후보는 당의 추천 필요)하며 궐위 시는 총리가 권한 대행, 90일 이내 신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 현직 대통령은 Mwai Kibaki로 2007년 12월 30일에 취임하였는데, 2010년 3월에 통과된 신 헌법에 의해 오는 2012년 7월말까지가 임기이다.

2) 내각

- 행정부 내각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장관 및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다.
- 단, 3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정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 Office of the President
- Ministry of State for Defense
-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and Minister for Home Affairs
- Ministry of State for Immigration and Registration of Persons
- Ministry of State for National Heritage & Culture
-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Ministry of State for Planning, National Development and Vision Twenty Thirty
- Ministry of State for Public Service
-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ry of Trade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Local Government
- Ministry of East African Communit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Finance
-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Cohesion and Constitutional Affairs
- Ministry of Nairobi Metropolitan Development
- Ministry of Roads
- Ministry of Public Works
- Ministry of Transport
-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 Ministry of Energy
- Ministry of Lands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eral Resources
- Ministry of Forestry and Wildlife
- Ministry of Tourism
- Ministry of Agriculture
- Ministry of Livestock Development
- Ministry of Fisheries Development
- Ministry of Development of Northern Kenya and other Arid Lands
- Ministry of Cooperatives Development
- Ministry of Industrialization
- Ministry of Housing
- Ministry of Special Programmes
- Ministry of Gender and Children Affairs
-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 Ministry of Medical Services
- Ministry of Labour
-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나. 사법부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최종항소법원(Court of Appeal): 형사 및 민사재판
- 고등법원(High Court): 형사 및 민사재판
- 하급지방법원(Resident & District Magistrate's Court): 5년 구금 이상 형사재판
- 대법원장(Chief Justice): Hon. Mr. Evans Gicheru

다. 의회

- 단원제이며 당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 보통선거로 대통령 선거 시 동시에 선출한다
- 임기는 5년이며 직선의원 210명, 대통령 임명 12명, 의장과 법무장관 등 총 224명으로 구성된다.
- 1998.1.27. 제 7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며, 2001. 6월 친 여 야당인 NDP 총재 등 4명의 유입으로 KANU 당 의회 과반수를 점유했으며, 2002. 3월 연립여당 KANU-NDP를 통합해(당 명은 KANU유지) 여대 야소 정국을 유지했었으나, 2002년 12월 총선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NARC (National Rainbow Coalition)당 집권체제로 바뀌었다.
- 참고 영문 웹사이트: <http://www.kenya.go.ke/>

1) 선거제도

- 케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대통령 선출은 총 8개 주 중 5개 주 이상에서 각각 투표자 수의 25% 이상득표자 중에서 최고 득표자를 결정 한다. 단, 5개 주 이상 각각 25%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인자만이 재투표를 실시해 결정된다.
- 만약 상기한 5개 주에서 25% 이상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 계속 해 재투표 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의원은 당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2) 정당제도 및 현황

☐ 국민연합당 (PNU, Party of National Unity)

- 의장: Mwai Kibaki (현, 대통령)
- 2007.9.16일 당시 대통령이던 Kibaki의 주도로 창당
- 2007.12월 총선에서 43석을 확보 하였으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는 제2당임.

- 2007년 말 총선을 겨냥하여 NARC당 소속이자 대통령이던 Kibaki가 군소정당 통합을 시도. KANU, NARC-Kenya, Ford-Kenya, Ford-People, Democratic Party등을 연합해 신당으로 창당

□ 오렌지 민주화 운동 (ODM, Orange Democratic Movement)

- 의장: Raila Odinga (현, 국무총리)
- 2007. 8월 창당
- 2008.12월 총선에서 99석을 확보, 원내 최대 다수당으로 부상
- 2005년 케냐 전국 헌법 개정 선거 시에 케냐 민중 운동 (Grassroots People's Movement)가 전신으로 개정선거 전국 투표에서 반대를 주장하였으며 총 58.12%를 확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 함으로써 정치적인 정당으로 세력을 구축.
- 2007년 8월에 2007년 말 대통령 총선을 겨냥하면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오렌지 민주화 운동 (ODM)과 오렌지 민주화 운동 케냐 (ODM-Kenya)로 분리.

□ 오렌지 민주화 운동-케냐 (ODM-Kenya)

- 의장: Kalonzo Musyoka (현, 부통령)
- 2007.8월 Raila Odinga가 이끄는 ODM과 분리되면서 창당
- 2007.12월 총선에서 16석을 확보, 제 1 야당인 PNU의 국회 내 지지세력
- 2007년 말 총선을 앞두고 ODM의 내부 분열과정에서 Musyoka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ODM으로부터 분리, 신당을 창당. 대통령 낙선 후 현재 ODM와 PNU 연합정부 내에서 부통령직 수행

□ 레인보우 연합당 (NARC, National Rainbow Coalition)

- 의장: Uhuru Kenyatta
- 1991.12월 창당
- 1997.12월 총선에서 16석을 확보, 제 1 야당인 PNU의 국회 내 지지세력으로 2007년 말 총선을 겨냥하여 NARC당 소속이자 대통령이던 Kibaki가 군소정당 통합을 시도
- KANU, NARC-Kenya, Ford-Kenya, Ford-People, Democratic Party등을 연합해 신당으로 창당
- 2009년에 NARC와 NARC-Kenya로 분리되면서 7석을 확보, 국회 내 영향력이 약화됨

□ 케냐 아프리카 민족동맹 (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

- 의장: Uhuru Kenyatta

□ KANU당 역사

- 1960.3. 키쿠유 중앙 연맹(KIKUYU CENTRAL ASSOCIATION)과 루오 정치 운동(LUO POLITICAL MOVEMENT, 전 KANU 사무총장 TOM MBOYA와 전부통령 OGINGA 중심)이 결합, KANU당 창당
- 1960. 8. 칼렌진 정치연합(KALENJIN POLITICAL ALLIANCE, 모이중심)과 마사이 연합 전선 (MASAI UNITED FRONT)이케냐, 아프리카민주동맹(KADU) 창당
- 1964. 11. 63년의 총선에 KADU당 대패, KANU당과 합당, Odinga 부통령에 피임
- 1966. 4. Odinga 부통령, 케냐타 대통령과 결별, KPU(KENYA PEOPLE'S UNION)창당
- 1969. 7. 케냐타 대통령의 후계자로 확실히되던 KANU 사무총장 TOM MBOYA 피살
- 1969. 10. KPU 불법화 규정, Odinga 구속(71.3. 석방 후 KANU 재입당)
- 1978.8.22.케냐타 사망으로 Moi 대통령(부총재)이 총재로 취임
- 1982.6. 9. KANU당을 유일한 합법정당으로 하는 개헌안 확정
- 1991.12.19. 다당제 헌법 개정으로 그 간 보유한 유일 정당 자격 상실
- 1992.12.29. 다당제 하총선으로 재집권 모이총재 4선 및 KANU당 의회 과반수 점유
- 1997.12.29~30 총선으로 재집권 모이총재 5선 및 KANU당 의회 과반수 점유
- 2001.6.11친 여야당 NDP 총재 등 4명의입각으로 KANU-NDP 연립정부 출범
- 2002.3.18연립여당 KANU-NDP 통합, 당명은 KANU 유지
- 2002.10.11 Raila Odinga 사무 총장 등 핵심 인사 탈당. NARC에 합류
- 2002.12.27 총선에서NARC당에 패하여 제 1 야당으로 전락
- 2007.9 당 총재인 Kenyatta는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 하지 않고 PNU를 지지하는 것으로 선포, 현재까지 PNU쪽을 지지하면서 연합 정부 내 Kibaki 세력을 뒷받침 하고 있음.

□ 기타군소정당

- Safina, Ford-People, Shirikisho, Ford-Asili, KSC (Kenya Social Congress), KNC(Kenya National Congress) 등

정당별 의석 분포 비교

정 당	약 칭	의석수
ORANGE DEMOCRATIC MOVEMENT PARTY OF KENYA	ODM	99
PARTY OF NATIONAL UNITY	PNU	43
ORANGE DEMOCRATIC MOVEMENT-KENYA	ODM-K	16
KENYA AFRICA NATIONAL UNION	KANU	14
SAFINA	SAFINA	5
FORUM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ASILI	FORD-A	1
FORUM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PEOPLE	FORD-P	3
SISI KWA SISI PARTY OF KENYA	SKS	2
MAZINGIRA GREENS PARTY OF KENYA	MAZINGIRA	1
FORUM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KENYA	FORD-K	1
PEOPLES DEMOCRATIC PARTY	PDP	3
KENYA AFRICAN DEMOCRATIC DEVELOPMENT UNION	KADDU	3
UNITED DEMOCRATIC PARTY OF KENYA	UDM	3
PARTY OF INDEPENDENT CANDIDATES OF KENYA	PICK	3
CHAMA CHA UMA	CCU	2
NATIONAL RAINBOW COALITION-KENYA	NARC-K	4
NATIONAL RAINBOW COALITION	NARC	3
PEOPLES PARTY OF KENYA	PPK	1
NEW FORUM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KENYA	NEW FORDK	2
DEMOCRATIC PARTY	DP	2
KENYA AFRICAN DEMOCRATIC UNION ASILI	KANU-A	1
KENDA	KANDA	1
NATIONAL LABOUR PARTY	NLP	1
Ex-Officio (의장, 법무장관)		2

자료: 케냐국회 홈페이지 (<http://www.parliament.go.ke>)

라. 최근 주요 정치 사회 동향

1) 정세 일반

- 2007년 대선 직후 소요 사태 및 대연정 후유증 만연
 - 2007년 말 대선 직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 1,500명이 사망하고 35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부족간 폭력사태를 겪은 바 있으며, 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끝에 2008년 4월 대연정 출범함
 - 그러나 양대 부족인 Kikuyu족과 Luo족간의 뿌리깊은 반목과 대립, 양대 부족을 대표하는 Party of National Unity(PNU) 및 Orange Democratic Movement(ODM) 등 양 정파 지도자들의 지도력 및 도덕성 결여, 과다한 정부조직 및 부정부패 만연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연정 역시 양 부족 및 정파간 신뢰 부족으로 인해 불안하게 유지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미국 국제관계 전문잡지인 'Foreign Policy'지는 2009년 6월 발표한 실패 국가 지수 (Failed State Index)에서 케냐를 14위로 평가하였음 (소말리아, 짐바브웨, 수단이 각각 1~3위를 기록하였으며, 북한은 17위에 기록됨)

- 대연정내 갈등 지속
 - 대연정은 당초 출범 시 50:50의 권력분점을 합의하였으나, 권력분점의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케냐 주재 외교단은 대연정 지속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권력분점을 위해 기존의 중앙부처수의 2배에 달하는 42개 부처로 확대 개편하였으나, 부처별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의 비효율/비일관성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부정부패 만연
 - Kibaki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한 현 연립정부 출범 이전 발생 스캔들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대규모 부정부패 스캔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주재국의 부정부패는 뿌리깊은 정경유착 관행과 위법 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법 조치가 미흡한 점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9년 7월 발표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케냐가 동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나타남

2) 대선 폭력사태 주도 정치인 처벌 진전 지체

- 대선 폭력사태 조사를 위해 Waki 고등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의 조사 후 동 보고서를 작성, 대선 소요 협상 중재자인 Kop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 동 보고서는 대선 폭력을 주도한 6명의 현직장관, 5명의 의원, 2명의 기업인에 대한 처벌과 이를 위한 특별 재판소 설립을 제안하고, 동 제안이 2009.3.1까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동 건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인계하여 이를 처리할 것을 요구 (특별 재판소 설치기한은 2009.8월까지로 연장 되었으나, 9월 현재 미 설치)
-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수 원조 공여국 들은 동 각료회의 의결결과 추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혁 이행에 대한 대 주재국 압력 수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케냐 정치권의 실망스러운 행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Obama 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누차 대선 후 폭력사태, 부정부패,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3) 개헌작업 지체 및 2012년 대선을 향한 정파간 조기 경쟁 가열

- 2008년 대연정 출범시 1년 이내의 개헌을 양대 정파간 합의. 헌법 개정 전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한 해동안 신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국민대표들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2009년 10월 국회에서 대국민 찬반 투표 회부 여부를 확정.
- 2010년 3월부터 대국민 신 헌법 계몽기간을 거쳐 2010년 8월에 대국민 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음. 신 헌법에 따르면, Kibaki 대통령의 임기는 2012년 12월말까지이며, 현재는 다수의 중견 인사가 차기 대선을 목표로 활동중임

4) 사회 분야 동향

- 소말리아 관련 테러 위협 고조
 - 소말리아 정세 악화에 따라 케냐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난민의 유입은 증가 하고 있으며, 기존 소말리아 계 거주민을 제외하고도 약 30만 명이 케냐 동북부 지역 난민촌 수용됨

- 2009년 6월, 소말리아 반군 단체는 케냐가 서방 연합국에 동조하여 소말리아 반군 공격 시 주재국내 고층 건물을 포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치안 상황 악화
 - 소말리아 등지로부터 불법무기 밀반입에 따라 주재국의 최근 치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직 국회의원, 정부 인사, 경찰관, 한국 교민 등에 대한 치안 사고가 2009년 상반기 다수 발생함
 -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2009.6월 전국적 경찰인력 교체를 실시하고, 치안장관 주재 하에 치안대책 회의가 개최되어 범죄소탕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 케냐 투자는 2010년까지 한국은행 신고기준으로 14건 U\$350만 수준이나, 현지 개인 및 실 투자규모를 보면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 케냐의 최대 투자분야는 호텔 및 카지노사업으로 파라다이스 그룹이 현지에 Safari Park Hotel & Casino에 투자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발공장, 가방공장, PVC제조, 카지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 투자청 통계상으로 볼 때 2004년에는 가구제조업체인 환성 가구 외에 2개사가 총 U\$340만 상당의 현지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되며, 2005년에 동물의약품 관련 1개 업체가 U\$23만 정도의 투자를 했으며, 2006년에는 U\$120만 상당의 악어농장 투자가 이뤄졌으나 2007-2010년에는 개인 현지 투자는 없었다(한국은행 신고기준). 한편 케냐의 대 한국 투자는 전무하다.

나. 현안사항

현재 한국과 케냐 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추진 중이다.

다. 수입규제사례

케냐가 한국산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케냐 상무부에서는 산하기관인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을 통해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조치로 케냐 표준청으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제품의 사례로는 케냐 표준청에서 한국산 라면에 대한 별도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수입 통관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해 환적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의 젤이 규격 미만이며 품질 표증 마크가 없다고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아 우리 수출업체들이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정책

1) 개요

1992년 12월, 최초의 다당제 하 총선을 실시해 정치민주화를 추진한 이래 각종 경제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1991년 이래 침체 되어온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 93년에는 2.19~5.14일에 각각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주안점으로 둔 각종 경제 자유화 조치(외환통제 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가격통제 완화, 수입허가제 폐지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 촉진 등)를 단행했으며, 1994년 중 2차례(2.18일 및 5.25일)에 걸친 외환자유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경제자유화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1995. 6월 외환관리 관련 완전 자유화 조치를 취해 사설 환전소를 인가한 바 있다.

그러나 1998 년 이후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자 2000 년 7 월 이후, IMF 의 지원이 실시 되었으나 원조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부정부패척결, 민영화 추진, 정부공직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원조금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2002 년 대선 이후 집권한 Kibaki 정부는 경제회복정책의 일환으로, 보건, 교육, 농업, 인프라 등 우선육성분야에 집중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07 년 12 월 31 일부터 필수품에 대한 VAT 삭감 등 규제완화 및 세금우대 정책을 통한 신규산업 육성, 부패척결, 강력한 재정정책, 사유화 촉진, 금융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 케냐 정부는 케냐 중장기 발전 마스터 플랜인 “Vision 2030”을 발표 하였다. “Vision 2030”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을 케냐 중장기 발전의 3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평등하고 갈등 없는 사회발전, 인간중심의 정치체제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빈곤해소를 위한 부의 창출 기회 확대(Enhanced Equity and Wealth Creation Opportunities for the poor), 사회간접자본 발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과학기술 혁신, 국토개발, 인적자원 개발, 위험 없는 사회, 공공서비스 증대를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 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부족, 협소한 내수 시장,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외부 경제 충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하여 Vision 2030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의 구매력이 약화된 점, 원조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경제정책 동향

2007년 대선 이후의 부족간 갈등, 글로벌 금융위기,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및 식량가격 상승, 교역 및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2008~2009년 케냐의 경제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케냐 정부는 경제불황 타개를 위해 2008년 하반기,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 실시를 고려하였으나 재정적자폭 확대,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부양효과 의문 등의 이유로 해당 정책 실시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IMF는 케냐 경기부양 추진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U\$ 2억 수준의 공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케냐 정부는 현재 16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 구축, 전력/교통/통신 등의 사회 인프라 구축 노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2010, 2011년의 2년에 걸쳐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회사법, 청산법 개정, 자본시장 구조조정 등이다.

또한, 케냐 정부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신규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성장 산업의 핵심은 모바일 산업 등 IT 산업, 풍력, 지열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도로 건설 등 물류유통 기반 산업 등이다.

3) 재정정책

식량난으로 인한 긴급 식량 수입, 2007년 대선 후 피해지역 재건사업, 연립정부 운영에 따른 정부기구 확대,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세수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어 현재 재정정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6월 발표된 회계연도 2009/2010 예산안에서는 약 6.6%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재정 압박은 케냐 정부가 Vision 2030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투자 분야에도 큰 타격을 미치고 있어 케냐의 사회인프라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민자 및 외자 유치를 통한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정부 부채율이 2009년 35%에서 2010년 46%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4) 통화정책

케냐 중앙은행은 2009년 7월, 기준 이자율을 0.25%포인트 인하한 7.75%로 발표하였으나 인플레이션과 가계 부채 증대를 우려한 정부 당국의 조치로 인해 2010년 여신 이자율은 14.4%로 2008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 증대 압력이 제기되고 있으나,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통화량 증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효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케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2012년 말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2011년 상반기 이후 통화량 증대 및 기준 금리 인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투자확대 및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산업육성 및 고용증대 목표

케냐의 인구증가 추세(연 2.4%)로 볼 때, 투자확대는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며,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력 흡수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7~8%의 높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내·외국인 투자확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무역자유화 조치, 외환자유화 조치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2002년 하반기부터는 케냐 투자진흥청(IPC)의 투자인정 기준을 약 U\$10만 수준으로 대폭 내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나이로비 주식 시장에 등록된 회사에 대해 외국인이 최대 75%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 시장관리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2003~2009년까지 매년 투자유치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나. 2010년 경제현황

케냐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의 경제성장률 2.6%보다 두 배 정도 상승한 5% 수준으로 2007년 말 전국 폭력 사태 이후 침체되던 경제가 2007년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가상승률도 2008년에 무려 17.8%나 올랐으나, 2009년에 5.3%로 상당한 안정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4.5%를 기록하여 서민경제도 상당한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외환보유고도 2008년에 28억 수준에서 2009년에 38억, 2010년에는 47억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연평균 환율이 1 U\$당 Ksh 80.75로 2008년 77.71, 2009년 Ksh 75.82로 케냐 실링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 2011년 경제전망

세계 경제가 2011년에도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케냐는 오히려 정치 안정세를 타고, 관광 산업 분야 회복, 연기된 국제 발행 실시, 탈규제 및 민영화 작업에의 박차 등으로 인해 2009년 및 2010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도 국내의 부실한 사회인프라, 기술 부족, 부정부패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케냐 경제의 불안 요인 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및 탈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2010년보다 높은 5.4%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가상승률도 2010년 4.5%보다는 약간 높은 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이어지는 중동, 북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정치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환율 역시 2010년 이후 약세를 보여 2011년에는 82.40 실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1: Economic Survey(2010)

자료 2: 케냐 중앙 은행 Monthly Economic Review 2010년 11월호

자료 3: EIU Country Report 2011년 2월호

2. 주요 산업 동향

가. 주요 산업 동향

1) 전체동향

2000년 0.6%의 저조한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1년 4.4%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하다가 다시 2002년 0.4%로 성장률이 급락했다. 2003년 2.8%를, 2004년에는 4.3%, 2005년도에는 5.8%, 2006년도에 5.7%의 경제성장률 이루어 전반적인 경제회복이 이루어졌고, 2007년에는 그 동안의 경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어 30년만의 최고치 7%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말에 대통령 총선을 기점으로 야기된 전국 폭력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정치상황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미국 및 유럽 금융 위기로 인해 2000년대 중반 경제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정치안정, 관광수입 증가, 해외직간접 투자 증가 등으로 2010년에는 무려 2배가 증가한 5%를 기록하였다.

케냐 GDP 성장률 추이 (2006~2010)

(단위: %)

연 도 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6.3	7.1	1.7	2.6	5.0

* 2010년은 EIU예상치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1년 2월호

분야별 GDP구성

(단위: %)

산 업	2006	2007	2008	2009	2010
농 업	23.6	25.9	24.4	24.4	24.3
제조업	10.2	9.9	9.8	9.5	10.2
무역, 호텔, 요식업	12.9	10.9	11.4	11.7	11.2
운수, 저장, 통신	9.7	10.9	11.7	9.8	9.8
정부서비스	7.9	11.8	8.6	7.2	7.8
건축업	4.3	3.0	3.0	4.4	5.0
기타	22.1	17.9	17.4	23	31.7

자료: Economic Survey 2010

2) 주요 산업 소개

농업은 케냐의 최대 수입산업이자 최대 고용산업이다.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차(茶)와 원예가 가장 큰 외화벌이 제품이다. 그러나 케냐 정부는 케냐의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농업 및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자 2차, 3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흉작으로 2009년 농업은 마이너스 성장률(-2.6%)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5.5%의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제조업 분야는 2004년 이후 서서히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성장률이 5%인데 비해 2007년은 11%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현지 생산업체 보호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조 관련 원자재 소비세를 없애고 반덤핑 및 불량품 및 모조품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AGOA도 제조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전력공급 부족 문제는 케냐 제품의 국내 및 인근 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원활하지 못해 약 2개월간 전력배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제조업은 2% 성장에 그친 바 있었으며, 2010년 들어 정부차원에서 수력에 의존하지 않는 지열발전, 풍력발전에 전력하고 있어 약간의 제조업 투자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업 분야는 2003년에 1.7%의 미약한 성장을 보인데 비해 2005년에는 7.2% 성장을 보였고 2006년에도 6.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8년 경제 개혁 정책으로 내세운 이른바 '비전2030'에서 정부는 경제회복의 핵심이 인프라 개선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국가 내 주요 도로 보수개선 및 재건에 지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인해 2009년에는 14.1%, 2010년에는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관광산업의 경우 2004년 이후 눈부신 성장을 기록한 분야로 2006년 95만 4,000명 상당의

관광객이 방문한 데 비해 2007년에는 약 11%가 증가한 105만 명 상당의 관광객이 케냐를 방문했다.

2007년 한 해 동안, 105만 명 중 유럽인이 58만 명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아프리카 내 방문객이 21만 명, 미국에서 13만 명, 아시아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 말 정치폭력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관광산업 성장률이 2007년 대비 36%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정치상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관광산업 성장률이 42.8%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14.6%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케냐는 우간다, 탄자니아와 함께 197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던 EAC (East African Community)를 2000년 7월부터 부활, 발전시킴으로써 3국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체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PTA (특혜 무역 지대: Preferential Trade Area)를 통한 경험·교역증진에도 적극적이며 1993년부터 개편된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of East and South Africa)에 회원으로 참여했고, 2000년 10월부터 역내 FTA회원으로 참가하였다.

가. COMESA

1) 추진배경 및 구성목적

세계적인 경제통합 움직임(EU, NAFTA, ASEAN등)에 의해 촉구됐으며 현존 PTA가 역내 경제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시장 창설을 위해 제시했다. (1993년 11월 PTA 정상회담에서 COMESA 구성에 관한 조약체결, 1994. 12월 동 조약 발효)

역내 생산력 증대, 관세장벽 철폐, 공동대외관세 채택 등을 목적으로 하고, 1999.5.20~21일 나이로비에서 COMESA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00.10.31일에 20개 회원국간에 COMESA 자유무역지대(FTA) 출범을 이루었다.

○ 규모

- 총인구 및 면적: 약 4억만 명, 12.88백만 평방km
- 총 GDP 규모: U\$3,600억
- 주요 지하자원: U\$239.7억(추정치)
- COMESA 수입(인산염(3000억 M/T), 석유(1050억톤), 상당량의 우라늄, 니켈, 구리, 코발트 매장(금, 다이아몬드, 백금, 크롬, 망간의 경우 전세계생산량의 대부분 차지)

○ 회원국(20개국)

- 앙골라, 브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0개국

나.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1) 시행배경

동아프리카 공동체(이하 EAC)는 소비인구 1억 2,000만 명, GDP 410억 규모의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5개국의 정치, 경제 동맹체로 동 관세동맹을 필두로 단일 소비 및 투자시장을 형성해 향후 EU(European Union)와 같은 단일화폐 사용을 비롯, 궁극적으로 정치연합까지 진 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동맹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치 및 경제통합의 포석단계인 동아프리카 공동체 관세동맹 합의는 2003.11월, 2004.1월 두 차례 무산됐다가 '04년 3월 2일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삼국 정상들이 '0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나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일피일 연기되었다. 이후 '0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2) 관세동맹

2006. 1.1일부터 시행된 EAC 관세동맹은 역내 외 국가로 구분해서 적용되는데 역내 관세동맹 국가간 거래에는 단일시장을 목표로 무세(0%)가 적용되며, 역외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부 자재는 0%, 중간재는 10%, 소비재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의 산업발전 단계가 우간다, 탄자니아보다 월등하여 향후 5년간 적용될 경과규정이 존재한다.

우간다 및 탄자니아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케냐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일부 제품을 제외 하고 완전 무관세로 전환시켰다.

(참고: 구체적인 세율 및 정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 홈페이지(영문) www.eac.int)

3) EAC 단일시장

2010년 7월부터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EAC 단일시장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AEC) 태동 움직임

2008년부터 아프리카의 3대 경제블록인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동아프리카 공동체 (EAC, East Africa Community),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가 통합되어 단일 경제권 추진계획이 가시화되었다.

아프리카 기존 3대 경제공동체 26개 회원국 정상과 관련 인사들은 2008년 10월 22일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에서 새로운 통합경제기구인 “아프리카 경제공동체(AEC; African Economic Community)” 발족식을 가졌으며, 이로써 아프리카는 COMESA(19개국), EAC(4개국), SADC(14개국)를 통합한 총 26개국, 인구 5억 3천 만명, GDP 6,240억 규모의 아프리카 역사상 최대의 경제블록을 탄생시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1) 수출

주요 수출대상국은 우간다,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EU 국가이며 대 EU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Africa Growth & Opportunity Act) 통과로 섬유제품 등의 대미국 무역터, 무관세 수출이 허용됨에 따라 2002 년 이후 대미 총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6~2008 년의 3 년간 수출액은 2006 년 U\$35 억, 2007 년 U\$41 억, 2008 년에는 U\$50 억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09 년에는 미국 및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총 수출규모가 U\$45 억 수준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0 년에는 다시 U\$52 억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 수입

주요 수입대상국은 UAE 등 중동국가, 영국, 독일 등 EU국가, 남아공 등이며, 2004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연평균 30~4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8년, 3년간의 수입규모는 2006년 67억, 2007년 83억, 2008년 100억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 으나, 2009년에는 수입규모가 U\$94억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하다가 2010년에 다시 U\$11억 수준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수입상품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에너지 중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양대 품목이 전체수입의 35% 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상대국의 경우에도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이 전체의 3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도입선인 UAE가 단일국가로서는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무역수지

만성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는 케냐 경제는 수입은 현저하게 증가 하는 반면, 수출의 증가는 완만함을 보여준다. 원예, 차, 철강, 커피, 소다회가 총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천연석유, 석유제품, 산업기계, 자동차 등이 총수입의 48.9%를 차지한다.

2006~2008년3년간 무역 수지 적자는 2006년 U\$32억, 2007년 U\$42억, 2008년 U\$61억으로 3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2009년 들어 적자폭이 U\$47억으로 감소하는 듯 하다가 2010년에 다시 U\$55억으로 대폭 증가하여 만성적 적자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 무역수지

(단위: U\$백만, %)

	2007		2008		2009		2010	
	교역량	증가율	교역량	증가율	교역량	증가율	교역량	증가율
수출(FOB)	4,132	18	5,040	20.3	4,502	-10.6	5,175	14.9
수입(FOB)	8,388	23.3	10,689	32.1	9,492	-11.2	10,631	12
수지	-4,256		-5,649		-4,989		-5,455	

*2010년은 EIU 예상치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1. 2월호

케냐의 주요 국별 수출 추이

(단위: U\$백만)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
우간다	564.91	385.21	497.00	502.00	539.45
영국	313.34	377.24	426.38	429.35	413.38
미국	159.54	281.52	284.63	297.57	386.54
네덜란드	242.79	272.24	324.63	332.50	352.66
탄자니아	264.12	253.30	330.55	341.58	350.45
총 계	3,462	3,516	4,132	5,040	4,502

자료: Economic Survey 2010

케냐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

(단위: U\$백만)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
U.A.E	481	1,074	1,325	1,539	1,458.65
중국	304	412	676.36	892.37	1,035.46
인도	326	523	841.45	845.33	850.66
미국	188	343	659.40	824.30	788.90
남아공	450	470	523.62	580.89	692.53
일본	311	407	609.12	750.46	580.95
영국	390	375	435.63	598.34	534.60
사우디	464	366	260.59	284.91	146.37
총 계	5,602	6,770	8,388	10,689	9,492

자료: Economic Survey 2010

케냐의 주요 수출국 수출비율(2009)

국가	우간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비율(%)	11.9	9.1	8.5	7.8

자료: Economic Survey 2010

케냐의 주요 수입국 수입비율 (2009)

국 가	U.A.E	인도	중국	남아공
비율(%)	15.3	8.9	10.9	7.3

자료: Economic Survey 2010

□ 품목별 수출입 통계

케냐의 상품별 수출 추이

(단위: U\$백만)

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9
차	561	656	780	791	726
원예	433	676	650	679	615
커피	129	127	125	133	135
철강	117	125	126	131	113
플라스틱	57	68	70	73	62
소다회	51	55	57	58	59
어류	61	55	54	65	57

자료: Economic Survey 2010

케냐의 상품별 수입 추이

(단위: U\$백만)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계류	549	1780	860	1023	1135	1050
정제유제품	543	780	894	902	900	832
원유	580	1340	762	768	780	769
차량	307	334	512	623	680	685
의약품	146	830	214	345	400	365
철강	268	279	296	280	310	360

자료: Economic Survey 2010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우리 나라와 케냐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석유화학제품, 철강, 섬유기계, 공구, 가정용 전자제품, 정밀 화학 제품 등이고 수입 품목으로 마사, 동 및 알루미늄 설, 어류품 세트, 커피 등이 있다.

2004년부터 수출 통계가 월등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188.4%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7년에는 전년대비 33%가 감소한 U\$1억3700만 수준을 기록했으나, 2008년에 U\$1억 5634만을 기록 14%의 성장세를 자시 회복하고 있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2003년 11% 하락세를 보인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올라 2007년에는 52%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U\$574만 수준으로 26%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케냐는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에 있어 현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역시 한국의 대 케냐 수출은 U\$1억6465만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대 케냐 수입은 U\$557만으로 2.9%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U\$2억 3269만으로 무려 41.3%나 증가하고 수입은 U\$924만으로 65.8%나 증가, 한-케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도 무역수지 부분은 갈수록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 케냐 수출입 추이

(단위: U\$천,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4	61,861	27.3	2,428	40.8	59,433
2005	71,039	14.8	4,360	79.6	66,679
2006	204,858	188.4	5,115	17.3	79,254
2007	136,742	-33.2	7,793	52.3	128,949
2008	156,364	14.4	5,739	-26.3	150,625
2009	164,653	5.3	5,573	-2.9	159,080
2010	232,687	41.3	9,237	65.8	223,450

자료: KOTIS

한국의 대케냐 주요 수출 품목 (2010년)

(단위: U\$천, %)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전년대비)
1	합성 수지	34,909	-7.9
2	기타 석유화학 제품	21,724	13.3
3	시멘트	12,989	7.8
4	기타 정밀화학 원료	10,101	111.6
5	타이어	7,032	2
6	아연과 및 스크랩	6,236	50.4
7	기타 섬유제품	5,337	34.6
8	건설 중장비	4,746	74.9
9	열 연강판	4,681	-77.9
10	무선 전화기	4,440	-22.9
11	기타 석유제품	3,955	129.2
12	인쇄 용지	3,530	107.7
13	축전지	2,465	51.3
14	변압기	2,207	-21.8
15	섬유 기계	2,178	742.9

자료: KOTIS

한국의 대케냐 주요 수입품목(2010년)

(단위: U\$천, %)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전년대비)
1	동과 및 스크랩	4,329	136.4
2	커피류	3,086	70.8
3	기타인쇄물	627	-18.6
4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226	128.9
5	기타종이제품	225	-24.1
6	화초류	188	226.8
7	식물제 의류	146	-
8	계	106	155.1
9	섬유 및 피혁가공 기계부품	64	-
10	TV 카메라 및 수상기	46	-
11	컴퓨터 부품	30	-
12	기타플라스틱 제품	21	-74.1
13	집적회로 반도체	21	-15.2
14	기타어류	15	-59
15	유선 통신기기 부품	12	-

자료: KOTIS

나. 한국상품 인지도

전반적으로 케냐 현지에서는 삼성의 휴대폰이 노키아와 정상 다통을 하고 있으며, LG는 가전 제품 분야, 특히 TV와 냉장고 부분에서 현지인들의 인지도를 독차지 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의 인지도를 배경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특히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료기 등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다. 유망상품

케냐 현지 유망상품은 Solar Panel, 통신장비(키폰 시스템), 건설자재, 보안장비, 사료, 액세서리(모조품), 저가 핸드폰, 금고, 정수설비, 의료장비, 인쇄기기, 농업/원예/임업용 기계, 비료, 타이어, Bottling Machine, 순간 온수기, 방송장비, 산업용 환경 처리 시설, 미용용품, 진단시약 등 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1) 수입신고(IDF)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민 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수입허가제는 폐지하고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케냐 관세청 관세과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the Import Declaration Form: IDF)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케냐실링으로 5,000실링(약 U\$67) 또는 CIF가격의 2.75%를 적용한다.

2) 선적 전 사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케냐 정부는 대 케냐 수출품에 대하여 지난 2005년 7월부터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을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자격증(CoC, Certificate of Conformity)을 제시하도록 수출입법을 개정, 2005. 11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출품은 선적지에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케냐 표준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그만큼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의 기준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게 됐다.

□ 수입자 측에서 할 일

케냐 수입자의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는 종전의 COTECNA사와 케냐 관세청(Kenya Revenue Authority)에서 계속 발급하며,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해당 세관에서 종전과 같이 스캔, 실사조사 등을 거쳐 통관 처리한다. 이에 따라 수입상들은 케냐 정부가 규정하는 양식(Form C52)에 따라 정직하고 정확한 수입품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케냐 관세청 연락처

- 홈페이지: www.kra.go.ke
- Customs Services Department(IDF Unit, 나이로비)
 - Forodha House, Ground Floor Middle Wing
 - P. O. Box 40160-00100Nairobi, Kenya
 - Tel:(254-20) 271-5540
 - Fax: (254-20) 271-7720
 - E-mail: idfnrk@kra.go.ke
- Customs House (IDF Unit, 몸바사 세관)
 - Tel: (254-41) 231-1474
 - Fax: (254-41) 222-6015
 - E-mail: idfmbombasa@kra.go.ke

이와 관련,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s)이 마련한 주요 세관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수출업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7월 1일부로 케냐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케냐 표준청이 정하는 기술 표준을 지키거나, 국제 시험 인정 기구(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또는 검정 업체 국제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에서 인준한 시험 기관에서 발행하는 ISO/IEC 17025 인증서 또는 검사 필증을 득한 제품만을 통관 처리한다.
- 제품의 저장수명(Shelf life)은 세관통관 시 포장 저장수명을 포함한 저장수명이 일반 제품의 경우 75% 이상 유효해야 하며, 의약품의 경우는 50% 이상 유효해야 한다.
- 중고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두바이를 제외하고는 선적지에서 검증을 마쳐야 한다. 일본과 두바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일본 또는 두바이에 있는 일본자동차평가원(Japan Auto Appraisal Institute)으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 만약 상기 명시한 인증서나 검사 필증이 없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입증될 때까지 세관에 보관되며, 제반 부대비용은 수입자 부담이다. 품질기준 미달로 판정된 물품은 통관이 거부될 수도 있다.

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1) 수입금지 품목

위조지폐 및 화폐, 풍기 물란물, 합법적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국가문장(Kenyan Coat of Arms), 군사문장이 찍힌 문서류, 국제적으로 관리 중인 마약류, 위험한 폐기물, 수은이 함유된 비누 및 화장품, 승용차용 타이어, 모든 모조품 등

2) 특별 승인이 필요한 수입제한 품목

우편 미터 스탬프 기계, 야생동물용 덧, 미가공된 귀금속, 무기류, 오존훼손물질, 유전자 변형품, 뼈, 벌, 상아, 비토종의 어류 및 번식용란(卵), 향정신성 약물 등

3) 식물류 수입 규제

각종 씨앗, 과일, 꽃, 껌꽃이 등의 수입은 식물보호법, 독초법(Noxious Weeds Acts), 농산물법(Agricultural Produce Act)등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되는데, 수입을 위해서는 케냐 내 KEPHIS로부터 선적 전에 원산지의 식물수입허가서(Plant Import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다. 수입쿼터

케냐는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료: 케냐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수입관리제도 변경

케냐 정부는 2005. 11월부터 대 케냐 수출품에 대해 기존의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자격증(CoC, Certificate of Conformity)을 제시하도록 수출입법을 개정, 적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의 경우는 현재 케냐 표준청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 검사(PVoC, 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대행업체로 지정한 남아공의 SGS와 국제검증기관인 Intertek 이나 한국의 Intertek 대행기관인 ETL SEMKO사를 접촉해 수출품의 PVoC 검사를 마쳐야 한다. (동 PVoC 검사 증명이 없을 경우 수입자에게 CIF 금액의 15%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함)

○ 한국 ETL SEMKO 연락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1 화원빌딩 3층(135-080)
- 전화: 82-2-567-7474
- 팩스: 82-2-567-8482
- E-메일: info.etls-korea@intertek.com

○ 추가적인 대 케냐 수출적합자격증 취득 및 대 케냐 수출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 www.kenyapvoc.com(PVoC 관련 대 케냐 수출절차 내용 확인)를 참조

나. 수입규제사례

케냐의 경우 우리나라 산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케냐 상무부에서는 산하기관인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을 통해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조치로 케냐 표준청으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한국산 라면에 대하여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 표준준수마크 미표기를 이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해 환적한 사례가 있다.
- 2003년 최근 사례로,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경쟁업체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의 젤이 기준 미만이며 품질표증 마크가 없다고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업체들이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위조 및 밀수품 근절을 위한 비상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04년 6월 11일자 발표된 정부예산안에서는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의심가는 품목에 대한 선사 무단 검색, 가택수색, 창고 수색 등을 허용했다. 또 이에 대한 벌금도 대폭 인상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케냐 내의 품질 인증관련 기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케냐 표준청 홈페이지 <http://www.kebs.org>)

5. 관세제도

가. 관세율

1) 관세율 종류

- 관세율 적용 종류에는 일반적 관세 이외에 반 덤핑세, 상세관세 등으로 구분되며 특정 항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2) 일반관세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
- 하지만 정책적으로 국내산업 및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류의 경우는 최대 100%의 관세와 200%의 VAT 를 부과하기도 한다.
- 농업용 자재 및 철강, 섬유 원사 등은 관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 대표적인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식품류	일반 식품류	25	0
	유제품	60	16
	쌀	35	200
	종자류(씨)	10	0
	식용류	10	0
	설탕류	100	200
화학제품	원료들	0	0
	페인트류	25	16
	필름류	10	16
기계류 (전자제품)	공기청소기	15	16
	냉장고	25	16
	음식, 음료 제조	0	0
섬유 및 의류	카펫 등 내장재	25	16
	일반의류	25	16
	가정용 리넨	25	16
	가발용 원사	0	16
교통, 수송	기차	5	16
	승용차	25	16
	자동차 부속류	15	16
건축자재	타일류	15	16
	세라믹 제품	25	16
	유리제품	15	16
	제지류	25	16
	철강제품	0	16
	아연판	10	16

3) 반덤핑세 및 상세관세

-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이 케냐 시장을 해치거나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정된 경우에 반덤핑세 또는 상세관세를 부과하는데 품목별로 상이하며 반덤핑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4) 무관세 혜택적용

- 국가적으로 특수기관 및 인명에 의한 수입품
 - 대통령, 케냐군부대 및 관련기관, UN직원, 외교관, 국가무상공여기관, 신체부자유자
- 기타 무관세 품목
 - 어류, 갑각류(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씨,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

나. 비관세 장벽

2005년 1월 1월부터 시행된 동아프리카협동체(EAC) 관세동맹은 역내외 국가들에 대해 차별관세를 적용한다.

우선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0-10-25'의 관세체제로 공동 대응한다. 즉, 비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원부자재 수입관세는 무관세, 중간재는 10% 그리고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역내국가 간에는 완전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진다.

케냐의 산업이 이들 회원국 중 월등하여 향후 5년간 케냐에서 우간다와 탄자니아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은 한정관세를 부담하는 유예조치도 있다. 물론 5년 후에는 케냐의 모든 제품이 완전 무관세로 역내국가로 수출된다. 참고로 이들 역내국가 간 교역규모는 총 U\$6억 상당이다.

구 분			2009까지(5년간)	2010부터(5년 후)
역외국가	원부자재		0%	
	중간재		10%	
	완제품		25%	
역내국가	우간다/탄자니아->케냐		0%	0%
	케냐->우간다	기본	0%	0%
		400개 품목	-2005년: 10% -2006년: 8% -2007년: 6% -2008년: 4% -2009년: 2%	0%
		기본	0%	0%
		800개 품목	-2005년: 5~25% -2006년: 4~20% -2007년: 3~15% -2008년: 2~10% -2009년: 1~5%	0%
	케냐->탄자니아			

주: EAC 관세동맹 관세부와 내용

자료: 케냐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동아프리카 관세동맹은 장기적으로 EU 선례를 본받아 화폐동맹은 물론 정치통합까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동아프리카 관세동맹 추이를 주시하면서 수출과 투자진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다.

동아프리카 관세동맹이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아프리카 수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EAC 관세동맹이 역외국가에서 유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0-10-25'의 관세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기업들에게만 불리한 요인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대만,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이 지역 선점을 위한 투자진출 등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대비도 필요하다.

수출 전략으로 수출자유지역(EPZ) 및 MUB(Manufacturing Under Bond), 보세공장(Bonded Ware House) 등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제도를 이용한 현지 진출로 동아프리카 공급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또 역내국가 간 무세 통관으로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완제품보다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기계 및 원부자재 시장을 겨냥하는 것도 방편이다.

6. 주요인증제도

케냐는 케냐표준청에서 전반적인 품질인증제도를 전담하고 있다.

- 참고 웹사이트
 - www.kebs.org
-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Laboratory Testing
 - Standard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Standards Information Resource Centre
 - Sale of Kenya and foreign Standards
 - Product certification(Issuance of the Diamond Mark of Quality)
 - Handling of Consumer Complaints
 - Calibration of measuring instruments
 - Maintenance of Standards of Measurement
 - Quality Inspection of Imports at Ports of Entry
 - ISO 9000 Certification
 - ISO 14000 Certification
 - Training Programmes and Technical advice

특히 수출업자에 수입품 품질검사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부터 케냐 표준청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수입 금지 조치됐다.

- 수입품에 대한 통상적 검사 절차는
 - 수입품에 대한 세관원 통보
 - 수입품과 관련 서류 대조검사
 - 샘플 착출 검사
 - 수입품 통관 허가 순으로 진행

표준청 기준 미달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자 또는 수출자 비용에 근거하여 환송 조치 된다.

7. 지적재산권

케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 2001년 지적 재산권 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제적인 재산권 보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케냐의 지적 재산법은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Patents), 실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 디자인 (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델(Rationalisation Models), 저작권(Copyrights), 식물 육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 등 크게 7가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적 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와 관세청에서도 상기 재산권위반에 대한 법적제제 및 처벌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가. 상표권(Trade Marks)

상표권(Trade Mark)은 상표법(Trade Mark Act) 제506조에 의거 Register of Trade Mark(법무부 산하) 등록을 관리하며 기간은 신청 후 10년간 유효하다. 10년간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 케냐 내의 상표권은 대부분 의약품, 가정용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급적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이 차후에 법률위반 시비 등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상표권 사용료(로알티)는 외국인의 경우 총 금액의 20%를, 내국인의 경우는 5%를 적용한다.

나. 특허권(Patents)

특허는 지적재산법에 의거해 규제되며 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20년간 법적으로 유효하다. 특허 등록 비용은 외국인의 경우 임시 등록비로 U\$50가 소요되며, 최종 확정될 경우 등록비로 U\$150이 소요된다. 등록 유지비는 2년째부터 8년까지는 U\$300, 9년째는 U\$350, 10년째는 U\$400, 11년째는 U\$500, 12년째는 U\$600, 13년째는 U\$700, 14년째는 U\$800, 15년째는 U\$900, 16년째는 U\$1,000, 17년째는 U\$1,500, 18년째는 U\$1,750, 19년째는 U\$2,000, 20년째는 U\$2,500이 소요되며 유지비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가 자동 취소된다.

다. 실용신안(Utility Models)

실용신안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되지 않고, 등록 신청비용은 U\$50이다. 처음 1년간 유지비는 U\$50이 소요되고 매년 U\$25씩 추가되어 10년째는 총 유지비가 U\$275 소요된다.

라.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취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5년씩 2번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비용은 내국인의 경우는 1,000실링(약 U\$13.4)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U\$40이며, 연 유지비는 없다.

마. 저작권(Copy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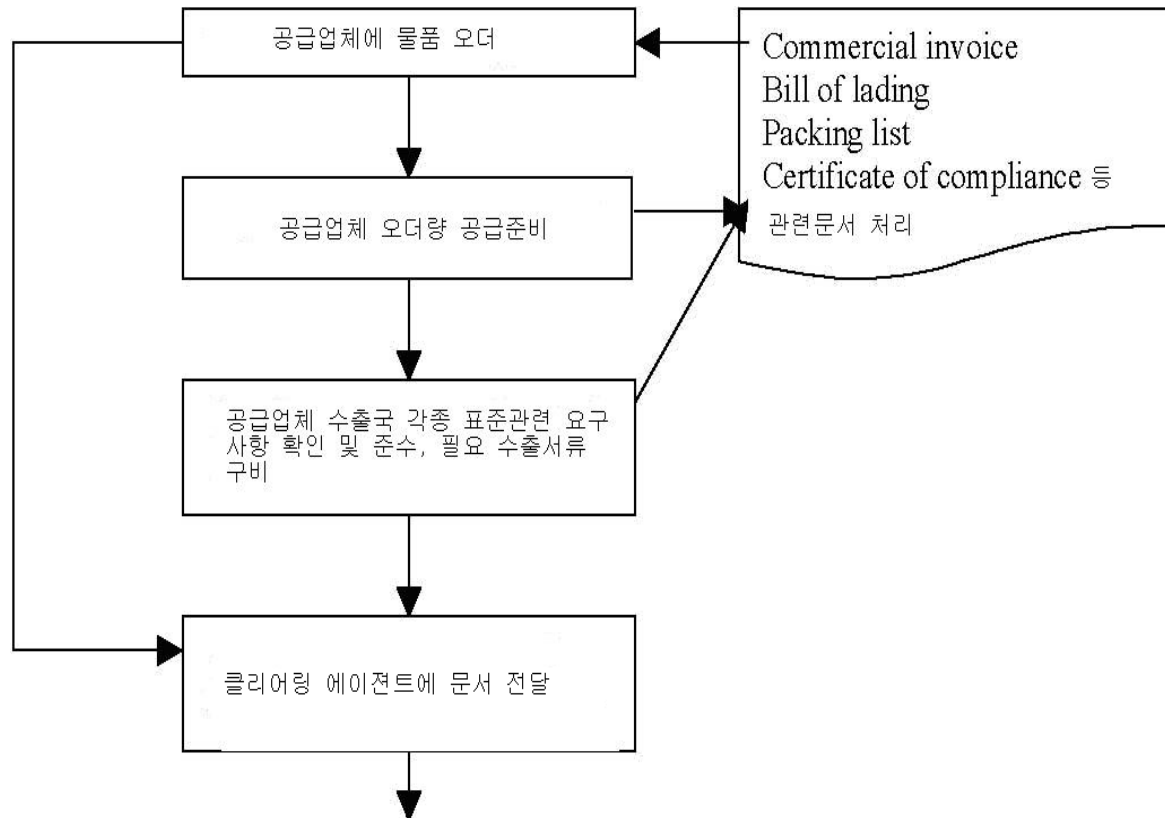
케냐 내 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어 등록비가 없다. 다만,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실제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원할 경우는 케냐 내 저작권자 협회(Copyright Associations in Kenya)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은 50년간 유효하나 저작권 발효시기는 (1)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적용하는 경우, (2) 저작품이 일반에게 공개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3) 저작품이 방송이나 공중파를 통해 공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며, 위반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영국법 수준에 상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관련 법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 Industrial Property Bill of 2001 / Copyright Bill of 2001 / Trade Marks Act / EIU발행 Country Commerce 케냐, 2007년 판)

8. 통관/운송

가. 주요 통관절차 개요

통관절차 개요



수입품 오더 이전 절차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무역 자격증 (Trade License) 확보	케냐 무역산업부	Licence
단계 2	필요 시 수입허가증 확보	케냐관세청	Licence
단계 3	음식물, 의약품, 화학관련제품은 수입 허가증 확보	항만검역소 케냐 식약청	Permit
단계 4	농산물의 경우, 식물수입허가증 확보 및 식물 생태 정보(phytosanitary)를 수출업자를 통해 증빙	KEPHIS	PermitPhytosanitary requirements
단계 5	케냐 표준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수출업자에게 전달	케냐표준청	Standardspecification
단계 6	수입품에 대한 제품명, 품질, 스펙, 수량들을 문서화	수입업체	Specifications
단계 7	수입품에 대한 금수조치, 관세혜택, 덤핑 관세부여 여부 확인	관세청	2nd schedule of the EA Customs Management Act
단계 8	수입품에 대한 금액 확인	수입업체	Costing schedule
단계 9	수입품에 대한 재정 조달	수입업체/은행	Funds are available
단계 10	기타 거래관련 상담	거래 은행	Financial advice

수입품 오더 시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공급업체 선정 및 가격 협상	공급자	Contract Place order
단계 2	수입 시 거래할 은행에 대하여 통보	수입자	Bank name
단계 3	계약에 따라 수입대금 처리	수입자	Advice on payments

수입품 도착 전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선적서류 구비(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Airway bill, Certificate of conformity)	수입자	-
단계 2	통관 에이전트 선정	KIFWA	
단계 3	통관 에이전트 통관관련 비용 수입자에 통보	통관 에이전트	
단계 4	통관 에이전트 운송업체 지정	Transporter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관련서류 세관에 처리	Clearing Agent KRA	
단계 6	품질검사 관련 서류 통관 에이전트에 전달. 에이전트 표준청으로부터 승인 획득	KEBS	
단계 7	통관 에이전트는 필요 시 KEPHIS나 항만 보건소에서 승인 획득	KEPHIS/ Port Health Office	

수입품 도착 시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세관에서 수입품 확인	KRA	
단계 2	통관허가서 (Release order) 발행	KRA	
단계 3	품질 표준검사 및 확인증 발행	KEBS	
단계 4	항만세 지불 후 수입품 통관 에이전트에 인수	KPA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수입품 운송	Transporter	
단계 6	수입자 인수		

나. 운송 및 운송비용**1) 무역항 및 공항 개황****□ 국제공항**

케냐의 국제공항은 나이로비에 조모케냐타 인터내셔널 공항 (JKIA), 몸바사에 모이(Moi) 인터내셔널 공항 및 엘도렛에 있는 엘도렛(Eldoret) 국제공항 등 3개가 있다.

□ 국제항구

국제 항구로는 인도양에 위치한 Mombasa 항구가 있다. Mombasa 항구는 1896년 Kilindini 에 건설된 최초의 선창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영국에 의해 추진된 케냐-우간다 간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대식 항구로 몸바사가 개발된 것은 1926년부터이며 1931년까지 대형선박 정박시설이 완료됐다.

2010년부터 총 투자액 U\$220억 상당의 라무 국제항구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 항구가 완성되면 동아프리카의 최대 국제항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 내륙운송비용

내륙 운송비용

육로교통	20 ft container	40 ft container
몸바사⇨나이로비	U\$ 1,100-1,200	U\$ 1,400 -1,500
나이로비⇨몸바사	U\$ 700-800	U\$ 1,100-1,200

주: 2010년 기준

자료: 현지 운송업체 견적

3)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 Millenium Forwarders Ltd

- Add: CanonTowers 1, 1st Floor Moi Avenue, P. O. Box 99746-MombasaKenya
- Tel : (254-20) 2220781
- Fax: (254-20) 2221935
- 전자메일: mfs@kenyaweb.com
- 업종(Business Line): Shipment, Clearing and Forwarding
- 담당(Contact Persons): Mr. Osborne Arunga (Managing Director)
- 설립연도(Year Established): 1995
- REMARKS: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통관업체임.

□ SDV Transami(K) Ltd

- Add: North Airport Road, Embakasi, Nairobi Kenya.P.O.Box 46586-00100, Nairobi, Kenya
- Tel (254-20) 6421000, 8231111, 8231118 ○ Fax: (254-20) 823195
- 전자메일: osman@transami.co.ke
- 홈페이지: www.transami.co.ke
- 업종(Business Line): Clearing and Forwarding, Transportation, Warehousing, Packaging and Removal
- 담당(Contact Persons): Auni Bhajji (Operations Director) / Mr. Osman
- REMARKS: 주로 대규모 화물 통관을 담당하며 상당히 신뢰도가 높음.

□ AGS Worldwide Movers(K)

- Add: Mombasa Road, Nairobi Kenya., P. O. Box 14061-00800, Nairobi, Kenya
- Tel : (254-20) 823490,
- Fax: (254-20) 823491
- 전자메일: www.ags-demenagement.com
- 홈페이지: agskenya@kenyaonline.com
- 업종(Business Line): Shipment, Clearing and Forwarding
- 담당(Contact Persons): Mr Gil Recizac (Managing Director)
- REMARKS: 프랑스의 국제적 통관 업체로 프랑스에 17개, 프랑스 관할지에 7개, 유럽에 17개, 아프리카에 2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도어-투-도어 서비스와 보관창고 서비스까지 가능해 신뢰도와 신용 면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아프리카 운송 환경에서는 가장 권장할 만함.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 동아프리카 경제 허브 시장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르완다,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수단 등 내란을 종식시키고 점차 경제 재생을 노리는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 중심에 있어 케냐를 통한 인근국 투자 진출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보호

- 외국인 투자 적극유치: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 목적
- 투자 원금 및 배당금 송금 완전 자유화 및 외환구좌 보유 허용
- 케냐 경제에 이익이 되는 어떤 형태의 투자도 환영
- 지방도시 투자 시 더 많은 특혜 부여
- 외국인에 대한 투자보호(헌법 제 75조에 명시)
 - 1963년 독립 후 케냐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몰수 또는 공공 수용사례 없음.

□ 외국인투자보호법(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ct, 1964)

- 인가기업증명서(Certificate of Approved Enterprise) 발급요건
- 투자자본 및 이윤, 차입원리금 본국 송금보장
- 외환관리법 규정준수 의무
- 외국인 투자 강제수용 등은 헌법과 동법에 규정된 경우 이외는 금지

□ 기타 법규: 회사법, 세법, 고용관리법, 수출보상법, 회사 등록법 등

- 외국인 투자산업의 보호(케냐 헌법 제 75조)
- 과실 및 투자원금 송금(외국인 투자보호법)

- 외국인 투자자는 재무부로부터 투자기업 인가서 획득 시 각종 혜택 수혜
 - 과실송금은 세금 공제 후 전액 허용되며 투자원금도 송금 가능함.
 - 투자원금은 투자하는 외국 화폐로 표시 가능('88.6월 개정)

3) 국제법 준수

-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케냐는 World Bank 산하기관인 MIGA의 회원국이며, MIGA는 회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상업적 리스크(전쟁, 내란, 회원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손실 등) 예방, 안전조치 제공 등을 보장한다.
-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케냐는 ICSID 회원국,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회원국 간의 분쟁 중재

4) 투자 매력도

케냐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아프리카 국가중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 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 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이디오피아 및 남부 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숙되고, 회원국별 역 내산과 역 외산 수입관세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80% 정도여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현 지 진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COMESA(www.comesa.int)는 2008년 기준 총 20개국 회원에 3억 8천 900만 인구, 총 GDP 2,750 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08년 기준, 미화 770억 달러 역내 수입과 820억 달러 역외 수출이 이루어진 무역량 1,590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다.

지난 2000년 10월 말 역 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이 외에도 동아프리카 3개국으로 이루어진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2000년 말부터 정식 출범했고, 2006년 1월부터 관세동맹을 맺었으며, 2010년까지 공동정부, 화폐 단일화를 추진해 역내 무관세 교역을 추진 중이어서 케냐를 통한 인근국 진출 투자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국가(ACP)에 대한 개발협정인 LOME 협정의 후신인 Cotonou 협정이 2000년 6월에 발효됨으로써 향후 2020년까지 유럽 국가로의 재수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2012년까지 유효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을 활용한 대미 진출이 (특히, 섬유산업)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요 투자 유치 정책

□ 외국인 투자 적극 개방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81,'88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분야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관광), 외화절약을 도모하는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업, 농산물, 화공제품 제조업)이며, 규제분야 업종은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국가방위산업 등 공공산업과 식품의 유통업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IPC(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특히 2002년부터 IPC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12만 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7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켜 해외 투자유치에 참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데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지용도 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 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다. 투자 장단점

1) 투자의 장점

-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반면 비교적으로 노동임금이 낮은 편에 속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진출이 유망하다.
-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낡은 산업 플랜트와 현저하게 낙후한 교통, 통신 인프라의 실제적인 교체시기가 되어 교체수요에 맞는 분야의 투자, 특히 IT산업 분야, 중고 플랜트를 이용한 특수 제조분야, 도로 개보수 분야들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 소말리아, 남부수단, 콩고민주 공화국 등의 인근국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여 이러한 떠오르는 신규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 동남부 아프리카 중 항만(동아프리카의 관문), 도로·철도(인접국인 우간다, 탄자니아와 연결), 전력, 수도, 통신시설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 국제공항으로는 나이로비, 몸바사, 엘도레, 국영항공사는 Kenya Airways('77.2월, East African Airways 해체 후 설립), 취항 항공사로는 Air France, British Airway등 약 40개, 활 주로는 약 1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운송수단별 비중은 도로가 44%, 항공이 27%, 해운 13%, 기타 6%로 이뤄져 있다.

2) 투자의 단점

- 아직도 투자에 대한 재정 신용도가 불안정하고 이자가 높아 투자에 대한 일정의 보장 제도가 불안한 상태이다.
- 노동자들의 근면, 성실성이 크게 부족하고, 단순노동 쪽으로 투자가 유리하여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분야 투자가 어렵다.
- 공무원의 부패, 국민의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근무 및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시장성 조사 및 케냐 합작선 물색에는 물론 정부로부터의 제조, 판매 인허가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투자진흥센터(IPC)에서 투자허가를 one-stop 서비스 한다고는 하나 대부분 사항을 본인이 직접 추진해야 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고 인센티브도 인근국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 케냐 측 합작선은 대부분 경영 및 자본기반이 취약하므로 투자기업은 사전에 직접 현지 실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자기자금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외국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가격규제가 1994년에 폐지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가격규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기타 협소한 시장규모, 치안문제로 인한 시설 및 원자재 도난, 숙련 노동력 부족, 높은 임금, 천연자원 부족, 비싼 사회간접자본 비용 등의 장애요인도 유념해야 한다.
- 원유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상업 에너지의 80%를 석유 및 석유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외화수입의 21%를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에 지출) 지난 30여 년간 석유 자원 개발을 꾸준히 시도해 왔으나 아직도 성공을 거두고 못했다.
-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매년 8% 정도가 되고 있어, 수력 및 지열 발전소 건설을 통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현재 발전량은 825MW(수력: 600MW, 화력: 180MW, 지열: 45MW)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1,500MW 이상의 전력이 필요 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케냐의 투자 및 외환 자유화 등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2003년 출범한 키바키 대통령 신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 등 대외 투자 신뢰도 회복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의 투자 진출 시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 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높은 제조비용, 금융시장 불안(고 이자율), 노동생산성 열위 등의 각종 장애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케냐는 한국에서 비행편으로 18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선박을 통한 각종 자재 및 제품의 수송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원격지이다.

케냐 국내의 각종 인프라(전력, 통신, 교통, 교육, 치안 등 제반 분야)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대 케냐 투자 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장조사를 위한 각종 통계 등 정보가 많이 부족하므로 투자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현지를 수차례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2007년말 대통령 총선을 기화로 전국 폭력사태가 발발, 그 경제여파가 2009년까지 미쳤는데, 2012년말에 차기 대통령 총선이 예상되고, 현재까지 2007년 폭력사태 배후 정치인들이 재출마할 전망이어서 대케냐 장기 투자 검토시 이점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기업 투자 동향

2006년 투자유치는 총 115개사 13억 5,100 만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케냐 내국인 투자 유치 금액이 3,930만 달러 수준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이 13억 1,170만 달러로 2005년보다 현저한 직접투자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도 외국인이 462명, 내국인이 1만7,379명으로 증가했다. 2007년 투자유치는 총 98개사 2억 7,000만 달러 수준으로 2006년 대비 총 투자금액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 내 투자가 29건 8,500만 달러로 가장 높고, 남아공이 4,500만 달러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투자분야는 2006년에 식료품 제조분야에 1억 달러 이상 투자된 반면, 2007년에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에 7,000만 달러 상당이 투자되었다.

2008년 투자유치는 총 79개사 U\$6억 9650만 수준으로 2007년 대비 총 투자금액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중국이 5건 U\$2억 1609만으로 투자규모가 가장 컸고, 남아공이 총 5건 U\$3691만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에 U\$3억 359만, 서비스 분야에 U\$3억 7100만, 관광분야에 U\$2201만이 투자되었다.

2009년에는 총 122건 U\$16억 8856만 수준으로 2008년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이 6건 U\$720만으로 전년대비 저조한 대신, 네덜란드 (총 2 건, U\$6억 287만), 영국 (총 16건, U\$2억 6190만), 이태리 (총 2건, U\$1억 222만) 등 유럽의 투자 진출이 두드러짐.

2010년 투자유치는 총 139건 U\$22억 7000만 수준으로 2009년 대비 총 투자금액이 현저하게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이 총 9건 U\$4억 9786만으로 가장 높고, 호주가 1건 U\$1억 9814만, 이스라엘이 1건 U\$4954만을 투자했다.

투자분야는 2006년에 식료품 제조 분야에 U\$1억 이상 투자된 반면, 2007년에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에 U\$7000만 상당을 투자 하였다.

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국가별 투자유치 통계 (2010, 상위 10개국)

(단위: U\$백만, 건)

순위	국가별	투자건수	총금액
1	중 국	9	497.86
2	호 주	1	198.14
3	이스라엘	1	49.54
4	영 국	14	28.23
5	우간다	1	12.38
6	인 도	9	9.41
7	덴마크	1	7.43
8	스리랑카	1	5.63
9	프랑스	2	4.96
10	미국	5	3.40
기타		64	1,453.02
총계	23개국	98	2,270

(자료: 케냐투자진흥청)

분야별 투자유치 통계 (2010)

(단위: U\$백만, 건)

순위	분야	세분	건수	금액
1	제조업	농기계, 플라스틱용기, 전기부속품 등	10	20.9
2	서비스업	광고, 인쇄 등	15	5.87
	서비스업	의료	2	2.45
3	관광 및 호텔		12	28.75
4	무역업		12	6.28

자료: 케냐투자진흥청 (2010년 기준)

다. 대표적인 외국 진출 기업 사례

일본 키오세라(Kyocera)는 2006년 2월에 현지 ISP업체인 African Online과 광대역 무선 서비스 (wireless broadband services)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키오세라의 iBurst 스테이션과 터미널을 도입한 나이로비, 몸바사, 나쿠루, 키수무, 나뉴키 등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 무선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키오세라에 따르면 동 서비스는 2006년 당해에만 시작과 동시에 2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Africa Online은 동 iBurst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전화(VoIP)까지 서비스하고 있는데, 현지 정보통신사업의 급성장 추세를 이용한 틈새시장 진출 사례로 볼 수 있다.

남아공 Sheltam Rail 사의 투자회사인 리프트밸리 철도 컨소티움(Rift Valley Railways Consortium)은 2005년 10월부터 향후 25년간 케냐와 우간다의 철도시설을 보수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 리프트밸리 철도 컨소티움은 Sheltam이 61%, 케냐의 Primefuels가 15% 등의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Mirambo Holdings, 남아공의 Comazar, CDIO Institute for Africa Development Trust 등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아 프리카 공동체와 세계은행의 후원 아래 철로는 각 정부 소유로 하되 민간 투자회사가 25년간의 운영 및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후 7년간 각국의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조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티타늄 채굴업체인 Tiomin Resources는 2005년 2월부터 몸바사 남부 50km 부근에 위치한 크왈레(kwale) 티타늄 광산 개발에 투자를 시작했다. 총 매장량 14억 80만 톤에 약 11년간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Tiomin은 이미 그 중의 92%를 장기 구매계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동일지역 30X4km에 달하는 구역에 2개 이상의 개발 가능한 모래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 케냐 정부에 탐사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 케냐 투자는 민간 및 개인투자의 경우 2006년에는 U\$12만, 2007년에는 3건 U\$3.3만 수준에 머물렀으며, 2008년에는 신고기준 대케냐 투자가 전무하였으나, 2009년에 2건, U\$14만 상당의 투자가 이뤄졌다. 2010년에는 대케냐 현지 투자가 전무하였다.

한-케냐 투자교류 통계

(단위: 건, U\$천, 연간누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케냐 진출	(신고기준)	0	0	1	0	0	0	2	140	0	0
	(투자기준)	0	120	3	33	0	0	2	100	0	0
우리나라유치		-	-	-	-	-	-	-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0년까지 케냐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지상사 (3개사. 이하 동일), 가구제조 (1), 호텔 (1), 가발 (1), PVC관련 제조업 (1), 사진관 (3), 음식점 (5), 관광업 (4) 등 25여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현지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주) 파라다이스 종합 관광호텔이 투자한 사파리 파크 호텔로 약 200여 명이며, 그 외 삼성, LG 등이 가전 및 휴대폰 시장을 확보해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 제도

1) 일반적 인센티브

수출자유지대(EPZ)를 제외하고 건별로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으나 1994년 IPC의 일괄 인센티브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세액공제는 기계, 건축, 광업, 농업분야 품목별 연간 베이스 기준으로 공제가 행해지고 있다.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면제 혜택은 수출촉진 및 전략 부문 자본재 수입 시 수입 금액 일부를 외국인 투자가가 지원할 경우 재무부와 협의해 관세 1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1995년 투자우대조치 계획에 따라 U\$200만 이하 사업에서 개인 투자용으로 2년 이내 사용되는 자본재에 부과된 수입관세는 재무부장관 승인 하에 투자자의 소득세 감면 등으로 상쇄 가능하다.

2) 투자공제 비율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60% 투자공제 인정하며, 설비투자용 기계, 플랜트 등 1,000만 실링(약 U\$120만)에서 5,000만 실링(약 U\$600만) 수입 시 10% 수입관세가 면세된다. 투자한 건물, 기계, 사무용기기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매년 세금은 공제되며, 보세가공지역(MUB)에 투자 시 투자공제는 100%이다. 케냐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 중 제조 및 호텔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60%를 공제한다.

3) 감가상각비율

호텔은 4%/년, 산업용 건물은 2.5%/년, 기계 류는 12.5%/년, 차량 류는 25~36.5%/년,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는 30%/년이다.

4) 특정산업 인센티브

기계류는 12.5%에서 37.5%까지로 농기계 37.5%, 컴퓨터 30%, 운송기계 25%, 선박 및 사무용 기기 12.5% 등이다. 건축물은 호텔 4%, 공장 및 교량은 2.5%가 적용되나 무역 및 제조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점과 사무실은 비공제 된다.

보세허가업체는 100% 세액공제를 받으며 EPZ 입주기업은 공장설비에 대해 20년간 공제되며, 농업 및 목축업은 3년간 연 33%, 광업 및 495톤 이상 선박 구입 시 공제 가능하다.

식량 생산 및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비료, 농기계, 소독제 등의 수입관세는 전액 면제된다. 석유 탐사장비 반입도 재무부 허가 시 관세가 면제되며 사업규모 10백만 실링 이상인 외국 자본호텔 개·보수 및 증축을 위한 장비 반입도 외화 수입증대 효과가 증명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5) 특정지역 인센티브

자본금 100백만 실링 이하 소규모 기업이 Nairobi 및 Mombasa 이외 지역에서 영업하면 수입 자본재 50% 관세가 감면된다.

6) 수출산업 인센티브

관세면제 제도는 제조업분야에서 수출을 위한 원자재 도입에 적용되며 재무부산하 수출진흥청에서 담당한다.

보세허가 제조업 제도는 해외수출진흥을 위한 것이면 국내외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수입장비 및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고 사업용 건물 및 장비도 100% 세액공제를 받는다.

나.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1) 정부 서비스 기관

□ 케냐 투자청: Kenya Investment Authority (KIA)

케냐 투자청은 본래 Investment Promotion Council에서 2005년부터 KIA로 변경됐으며, 케냐 내 모든 해외 직·간접 투자에 대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기관이다.

○ 본사

- 주소: 8th Floor, National Bank of Kenya Building, Harambee Avenue, P.O. Box 55704-00200 City Square, Nairobi, Kenya.
- 전화: (254) (20) 221401 - 4 / 팩스: (254) (20) 243862
- 휴대폰: (254) (722) 205424 / 209902 / (254) (733) 601184
- 전자메일: info@investmentkenya.com
- 웹사이트: <http://www.investmentkenya.com> (Webmaster: webmaster@investmentkenya.com)

○ 공항사무소

- P.O. Box 19083 Nairobi, Kenya
- 전화: (254) (20) 822111 Ext. 136 / 팩스: (254) (20) 822907

○ 엘도렛 사무소(Eldoret Regional Office)

- 주소: National Bank Building 2nd Floor, P.O. Box 4638, 30100 Eldoret
- 전화: (254) (53) 2061204, 2033108

□ 케냐중앙은행(Central Bank of Kenya)

- 담당자: The Bank Secretary, Central Bank of Kenya
- 주 소: Haile Selassie Avenue, P O Box 60000-0200, Nairobi.
- 전자메일: info@centralbank.go.ke
- 홈페이지: <http://www.centralbank.go.ke>

지점

Branch	Address	Telephone	Fax
Head Office	- Haile Selassie Avenue, P.O. Box 60000-0200, Nairobi	+254 20 2861000 +254 20 2860000	+254 20 340192
Mombasa	- Nkurumah Road, P.O. Box 86372, Mombasa	+254 41230954/9	+254 41 222524
Kisumu	- Jomo Kenyatta Highway, P.O. Box 4, Kisumu	+254 57 2020128	+254 57 45386
Eldoret	- Uganda Road, P.O. Box 2710, Eldoret	+254 53 2033325	+254 53 32844

2) 투자관련 기타 서비스기관

□ 자본시장관리국(Capital Market Authority)

- 주소: Re-insurance Plaza, 5th Flr, Taifa Road,
- P.O. Box: 74800-00200, City Square-Nairobi
- 전화: +254-020-226225,221910 / 팩스: +254-020-228254
- 전자메일: corporate@cma.or.ke
- 홈페이지: www.cma.or.ke
- 참고사항: 주식시장을 관리 통솔하는 기관

□ 수출자유공단 관리소

- 주소: Athi River EPZ, Viwanda Road off Namanga Highway
- P.O Box: 50563 00200, Nairobi, Kenya.
- 전화: (254 - 45) 26421/2-6 / 팩스: (254-45) 26427
- 전자메일: info@epzakenya.com

□ 케냐 제조자협의회(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주소: Mwanzi Road, Off Peponi Rd, Westlands
- P.O Box: 30225-00100 GPO, NAIROBI
- 전화: 3746005 / 7, 3746021 /22 / 팩스: 3746028, 3746030
- 휴대폰: 0722-201368, 0734-646005
- 전자메일: info@kam.co.ke
- 웹사이트: www.kam.co.ke
- 참고사항: 제조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제조업 관련 제도 및 관련법 제정, 시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단체

□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s)

- 본사
 - The Managing Director
 - P.O Box 00200 54974, Nairobi, Kenya
 - Tel: (+254 02) 605490
 - Pilot line, 605506,605550,605573,605574,605610,605634,
 - Mobile: 0722202137/8, 0734600471/2
 - Fax: (+254 02) 604031, 609660
 - Email:info@kebs.org
 - HomePage: www.kebs.org
 - I.C.D OFFICE: 전화 020-820859
 - 공항사무소: 020 825501
- COASTAL 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99376, Mombasa

- Tel: (+254 041) 229563, 230939-40 / Fax: (+254 041) 229448
- E-Mail: kebs-msa@swiftmombasa.com

- LAKE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2949, Kisumu
 - Tel: (+254 057) 22396, 23549 / Fax: (+254 057) 21814
 - E-Mail: kebs-ksm@swiftkisumu.com

- ELDORET OFFICE
 - P.O. Box 8111, Eldoret
 - Tel: (+254 053) 33151/63377 / Fax: (+254 053) 33150
 - E-Mail: kebs_eld@africaonline.co.ke

- MT KENYA 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1790, Nyeri
 - Tel: 061 2036/7 / Fax: 061 2038

- NORTH EASTERN REGION
 - P. O Box 978
 - GARISSA

- NORTH RIFT 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2138, Nakuru
 - Tel: 051 210553/5

- BUSIA OFFICE
 - P.O. Box 19, Busia
 - Tel: 055 22044

- NAMANGA OFFICE
 - P.O. Box 217, Namanga
 - Tel: 045 5132288

- MALABA OFFICE
 - P.O. Box 330, Malaba
 - Tel: 055 54270

- ISEBANIA OFFICE
 - P.O. Box 166, Isebania
 - Cell: 0735 740159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법상 구분

1)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 및 상장 요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현재 나이로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수는 52 개임
- 법정 최소 자본금은 1,000 만 케냐 실링 (USD 약 130,000) 이상이며, 3 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함.
- 그러나 자본금 규모가 일반적인 케냐 법인의 규모에 비해 높고, 피감사 의무 부여 등으로 인해 상장의 실익이 크지 않아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 및 상장에 적극적이지 않음

2) 유한회사

- 케냐 등록 법인의 대표적 형태
- 1 인 이상의 투자자(투자자 최대수 제한은 없음)와 50 만 케냐 실링(USD 약 6,500)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함
- 투자자 내부 협의에 따라 운영 규칙 및 의사결정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의결 정족수는 총 지분의 51% 이상을 기준으로 결정됨
- 주식회사와 달리 피 감사 의무가 없고,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적은 관계로 개인 기업과 함께 대표적 케냐 법인 형태임(전체 등록 법인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함)

3) 개인기업

- 개인 기업은 소규모 영세 기업으로부터 연 매출액 USD 100 만 이상의 중견 규모 형태 등 다양한 규모이며, 외국인 투자자 역시 자유롭게 설립 가능함
- 전체 등록 법인 중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한회사와 함께 케냐 법인의 대표적 형태임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회사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며, 회사명, 자본금, 투자자 별 주식 배당 수 (해당 시), 투자자 별 책임 및 약관 등을 명시한 회사 정관, 등록비용(약 USD 500) 을 Registrar of Companies(법무부 산하)에 제출해야 함
- 매년 주주 및 이사 갱신 현황을 Registrar of Companies 에 보고 해야 할 의무 있음

2) 지사 및 연락사무소

- 개설 방식은 현지 법인 개설 방식과 동일하나, 지사 개설 후 30 일 이내에 정관, 회사 설립 규명 자료, 이사명단, 부채명세서, 법인 주소를 Registrar of Companies 에 제출해야 함
- 단, 지사의 경우 현지 법인 및 사무소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됨.
- 세부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음

현지법인 및 지사의 세제상 차이

구 분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연락 사무소
법인세 (Corporation Tax)	과세이익의 30%	과세이익의 37.5% 또는 과세이익 20 실링 당 7.5 실링	법인세 및 VAT 면제
기타 소득세	동일		

주: 지점이 해외본사에 지불한 경비는 세금 공제대상이 아님.

다. 투자 주체 별 형태

1) 단독 투자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단독 투자는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 형태로 추진해야 함

2) 합작 투자

- 합작 투자 사 중 보험, 통신, 또는 나이로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 지분 보유율이 각각 66.7%, 70%, 75% 이하의 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 되어 있음.
- 또한, 어업 관련 법인의 경우 어업법 (Fisheries Act)에 의해 지분 보유율이 49% 이내로 제한됨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1) 선호형태 및 사유

- 주로 회계감사 피감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및 개인회사 형태의 진출을 선호함

2) 외국인에게 어려운 형태

-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 단독 투자는 규제가 높다.
- 또한 규제 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Under Table Money,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현지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단독 투자는 권장되지 않고 있음

라.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비용
1	설립요건	○ 유한회사 - 법정최소자본금: 50 만 케냐 실링 - 투자자: 1 인 이상 ○ 주식회사 - 법정최소자본금: 1,000 만 케냐 실링 - 투자자: 3 인 이상	주식회사 설립 및 상장 시 피 회계감사 의무 있음	Kenya Investment Authority (케냐 투자청, 케냐 투자 One-Stop Service 기관)	2 주/약 USD 500 (변호사 비용)
2	구비서류	- 법인등록 확인서, - 법인 정관 - 법인설립 신고서	필요 시 정부의 영업 허가서 제출(통신사업, 의약품 분야)		4 주/소요경비 없음
3	허가서 신청	상기 구비서류 일체			2 주/소요경비 없음
4	허가서 발급	신청 후 약 2 주 소요			
5	서명등록	케냐 투자청을 통한 등록 대행 가능			
6	구좌개설	법인등록 확인서			1 주/소요경비 없음
7	세무 코드발급	신청서, 법인설립신고서, 사진 2 매(여권용)			

2) 지사설립절차(지점 및 대표사무소/프로젝트 오피스)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일) / 비용
1	설립요건	상기 유한회사 설립 절차에 의거 설립. 설립 후 Registrar of Companies 에 신고 필요(30 일 이내)	<u>대표 사무소</u> : 본사 최소 1 년간 운영 잔여기간 최소 1년	Registrar of Companies	2 주/USD 500 (변호사 비용)
2	구비서류	- 본사 등록증(영문) - 정관 - 회사설립 규명 자료 - 부채명세서 - 이사명단 - 법인 주소			30 일/소요비용 없음

마.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1) 법무 법인

회사명	Miller & Company
주소	P.O.Box 45707-00100, Nairobi, Kenya
전화번호	+254-20-2228467
웹사이트	www.milleradvocates.com
이메일	miller@milleradvocates.com
규모	연 매출액 1,200만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회사명	Murgor@Murgor Advocates
주소	P.O.Box 59665-00200, Nairobi, Kenya
전화번호	+254-20-222-1019
웹사이트	www.murgoradvocates.co.ke
이메일	info@murgoradvocates.co.ke
규모	연 매출액 1,000만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2) 회계 법인

회사명	Pricewaterhousecoopers(K)
주소	P.O.Box 43963-00100, Nairobi, Kenya
전화번호	+254-20-2855001/2
웹사이트	www.pwc.com/ke
이메일	pwc.kenya@ke.pwc.com
규모	연매출액 USD 750만
한인/교포 회계사 유무	없음

회사명	Deloitte & Touche(K)
주소	P.O.Box 40092-00100, Nairobi, Kenya
전화번호	+254-20-4230000
웹사이트	www.deloitte.co.ke
이메일	admin@deloitte.co.ke
규모	연매출액 USD 580만
한인/교포 회계사 유무	없음

회사명	Kimami Kerretts & Co CPA(K)
주소	P.O. Box 46335-00100
전화번호	+254-20-2728388
웹사이트	www.kimanikerretts.com
이메일	audit@kimanikerretts.com
규모	연매출액 USD 350만
한인/교포 회계사 유무	없음

6. 투자입지여건

가.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투자

1) 개요

케냐의 산업단지는 주요도시인 나이로비, 몸바사, 엘도레, 나쿠루, 키수무등에 지정 공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41개의 수출 자유 지역(Export Processing Zones)이 있는데,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Athi River EPZ이 가장 크며, 그 외에도 나이로비, 보이, 케리초, 몸바사, 킬리비 등지에 EPZ이 존재한다.

수출자유지대(Export-Processing Zones: EPZs)는 수출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한 공단 지역이다. 저렴한 노동력과 운수시설 편의가 제공되고, EPZ Authority의 승인과 사후 감독이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사업개시 후 10년간 세금전액 면제, 이후 10년간 25% 세금 부과, 사업개시 후 10년간 배당소득 및 과실 송금에 대한 원천세 면제, 수출을 위한 기계 장비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록세, 부가세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 수출자유지역관리공단(EPZA,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개요

- 설립: 1990년
- 주소: Box 50563, Nairobi, Kenya. 2nd Fl., British American Centre, Mara/ Ragati Road
- Tel: (254-20) 712800/6
- Fax: (254-20) 713704
- E-mail: epzahq@africaonline.co.ke
- Website: www.epzakenya.com
- 관리소장: Mr. R.J. Kigunda (Acting General Director)
- 공단산하 수출자유지역: 총 17개
- 입주업체: 총 30개사,
 - Nairobi: 6개 공단(3개 운영 중, 1개 준공, 2개 건설 중)
 - Athi River: 1개 공단(운영 중), 최초 건설 및 제1 규모
 - Mombasa: 8개 공단(3개 운영 중, 4개 준공, 1개 건설 중)
 - Malindi: 1개 공단(건설 중)
 - Kilifi: 1개 공단(운영 중)

□ 나이로비 수출자유지역

- 주소: Box 50563, Nairobi, Kenya. 2nd Floor, British American Centre, Mara/ Ragati Roads- Upper Hill
- 전화: (254-20) 712800/6
- 팩스: (245-20) 713704
- e-MAIL: epzahq@africaonline.co.ke

□ 아티리버(Athi River) 수출자유지역

전체면적 339 헥타르 공장지대이며, 세계은행으로부터 80%, 케냐 정부로부터 20% 자금이 조달되어 수출 지향 산업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큰 지역사회인

마보 코와 키텅겔라에 보조서비스를 제공해 공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6.7km의 아스팔트 도로, 411개의 가로등, 직경 100~600 mm의 6.2 km 수도관, 부설식당이 있는 4층 행정 건물, 각 1000평방 미터의 6개 공의 건물, 소방서, 병원, 지역 관세, 안전 경찰서, 발전소와 전기 분배망, 4개의 직원 식당 등 간접시설이 있으며, 주로 의류 제조, 전기 조립, 수공업 제조, 식품처리, 포장, 플라스틱 주조, 보석 처리, 종이 변환, 가구 제조 등의 경공업 투자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아티리버 수출자유지역내 민간 투자자 들에게 열려있는 투자기회는 다음 6가지 주요 분야이다: (1) 아티리버 EPZ 병원 운영(민간 의사에게 임차), (2) 저 소득층의 EPZ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28헥타르), (3) 식당시설 운영, (4) 은행이용 가능, Business Center에 공간 확보 가능, (5) 주유소, 가게, 시장, 호텔, 위락시설을 위한 9.7헥타르의 일반 상업 지역 등

○ 전화: (045) 22136/22918 Pm 5시 이후: (045) 22426 (Police Post)

□ 몸바사 수출자유지역

1990년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 Development Bank)을 초청해 EPZ를 몸바사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키페부(40헥타르)와 코코토니(400헥타르)의 2개 지역을 선정했다.

키페부 EPZ는 1996.9.19일에 EPZ로 선정되어 면적은 48.84헥타르에 달하며 공항 및 항만에 가까워 완전한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디자인에는 18헥 타르에 7만2,000평방 미터의 산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장으로 표시, 현재 12개의 산업 건물이 첫 번째 투자자 그룹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코코토니는 몸바사로부터 25km 떨어졌으나 철도와 근접해 있고, 규모가 넓어서 중공업에 알맞으며, 2007년 당시 조사와 구획구분이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몸바사의 EPZ 계획은 U\$1,800만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은 아프리카개발은행(ADB)과 아프리카개발 기금(ADF)에서 조달하고 있다. 몸바사는 동아프리카의 가장 수출입이 많은 항만 도시이다.

좋은 사회 간접자본을 갖추었으며 노동력이 풍부하고, 해안 농업 원자재(코코넛, 캐슈넛)의 입수가 쉬우며, 나이로비 다음으로 산업활동의 집종의 규모가 큰 지역이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볼 때(특히, 몸바사가 수출입항인 점을 고려) 원자재의 운송 및 완제품 수출 면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부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주소: P. O. Box 89474 MOMBASA Room 7, New Baggage Hall, Kenya Ports Authority
- 전화/팩스: (254-41) 228413
- 수출 자유 공단에 대한 상세정보 웹사이트: www.epzakenya.com

7. 노동관리

가. 노동 법규

단일 법이 아닌 7개 노동관련법이 노동조건과 고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 법, 임금 및 고용 조건에 관한 법, 근로자보상법, 노동 쟁의법, 노동조합법, 영업 시간법, 몸바사 영업 시간 법이 이에 해당한다.

나. 임금

2006-2008년 사이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 산업과 농업부문으로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합과 노동 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2008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사무직의 경우 110~160달러 수준이며, 단순노동직은 80~110달러 수준이다.

다. 근로 조건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노동자 기본임금의 5%, 금액으로는 KSh 200 범위 내의 금액 50% 씩을 국가사회안정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월평균 Ksh 1,000 이상을 받는 경우 KSh 30~320을 국가의료보험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간제 및 임시직은 복지혜택이 없는 대신 법정 최저일당이 정식 고용된 경우보다 더 높다.

연간 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라. 해고

수습기간은 주로 3개월로 한정하며, 그 이후 회사자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고가 어려워 많은 회사가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고용하고 있다. 특히 정식 고용 시에는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기본 노동법에 준하는 모든 조건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해고할 때 유리하다.

마. 외국인 취업

공식적으로 외국인 고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지만 이민국(DI)이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케냐인이 할 수 없는 자영업, 전문직은 Class H의 노동허가 취득이 쉬웠으나 2004년 이후 법인 설립 및 투자용 외화반입 조건인 Class A로 (노동비자 취득비용 U\$1300-2000, 2년 유효)바뀌어 외국인 취업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바. 노동조합

중앙무역연합회(COTU,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으며, 노사 관계는 정부, COTU 및 케냐고용주연합(EFK)으로 구성되는 3자 노동쟁의위원회에 의해 조정된다. 노동쟁의 중재는 COTU와 EFK의 대표 및 노동부로 이루어진 국민자문위원회(NCC)가 담당한다.

Trade Unions Act Chapter 233에 의거,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1개 사업장 종사원이 10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종사원과 연대해 10인 이상이 되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 Trade Unions Act에 의거, 노조활동은 보장되어 있다.

노동자의 50% 정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 대부분이 사무직이 아닌 공장 노동자이고,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실업률이 높은 관계로 노사관계는 원활하며, 정부의 영향으로 태업, 파업 등의 사태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사. 파업

단체협상이 결렬되었거나, 고용주가 산업재판소 제소를 거부하거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쟁의통보 접수 후 21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파업률은 매년 100건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실업률이 높고 계속 상승세여서 파업이 1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적다.

8. 조세 제도

가. 법인세(Corporate Tax)

자국 내 법인인 경우 모든 수입에 대하여 30%, 해외업체의 지사 37.5%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이로비 스톡 매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새로이 등록된 업체의 경우는 등재 후 3년까지 27%를 징수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에서 면제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거주인이든 비거주인이든 5%에 해당하는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세금에는 비적용하며, 재정기관에서 주고받은 배당소득은 면세를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VAT)는 케냐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한다.

기본세율은 16%이며, 가공전의 농업생산물과 항공기, 건강위생, 교육, 농업관련 품목의 수입 및 서비스는 면세이다.

종전에는 연간 수입이 4만6,000달러 이상인 경우 VAT 등록이 의무였으나 2002.6월 예산안 이후 3만8,000달러 수준으로 낮추어 대부분의 업체가 VAT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만 부과하던 식용유, 비스킷, 케찹, 소세지, 과일잼 등도 도·소매 전 과정에 VAT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전에 부과하지 않았던 건물의 매수에도 VAT를 적용한다.

다. 소비세(Excise Duty)

물품세는 주류, 담배, 오토바이, 자동차, 연료, 화장품, 생수, 비스킷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각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라. 영업세: 없음

마. 소득세

현지법인 및 개인회사의 경우 법인세 30%이며, 외국계 지사의 경우 법인세 37.5%이다.

공장 설치지역에 따라 2~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든 케냐 거주인(Resident)이며, 거주인의 요건은 케냐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중 183일 이상 또는 3년 연속 연평균 122일 이상 케냐에서 직장에 종사한 사람이다.

비거주자에게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케냐에서 발생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 수준별로 10%에서 30%까지 6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배우자 및 보험공제에 한정되고 있으며, 주택 및 교육 공제는 폐지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표

연간 소득액(Ksh)	적용세율(%)	총 세금액(Ksh)
0~10,164	10	1,016
10,165~19,740	15	2,452=1,016+1,436(95,76실링의 15%적용)
19,741~29,316	20	4,367=2,452 + 1,915(9,576실링의 20% 적용)
29,317~38,892	25	6,761=4,367+2,394(9,576실리의 25%)
38,893실링 이상	30	6,761+소득액의 30%

자료: 케냐국세청 웹사이트(<http://www.kra.go.ke>)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관리

1995년 7월 외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중앙은행법(the Central Bank of Kenya)이 개정되어 외환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됐다.

개정 이전 해외송금이나 직접투자 시 중앙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 후 대규모 외환거래를 제외하고는 상업은행 인가로 가능하다.

비거주자들도 케냐 국채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투자목적 외환매입 및 매도가 자유화됐으며, 수출자는 상품 판매 대금을 외화를 영수하여 국내은행 외화계좌 예치가 가능하다.

1만 달러 이상 매입 시 실수 거래 증빙 및 중앙은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 사설 외환교환소(Forex Bureau)도 인가하여 95년 이후 13개의 환전소가 설립됐으며, 2008년 현재는 95개가 공식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1) 외환규제내용

외국인투자보호법(The Foreign Investments Protection Act Chapter 518)에 의거, 기업허가증인서(Certificate of Approved Enterprise)를 획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과실송금과 투자 원금의 송금도 보장을 받는다.

과실송금은 은행 승인을 필요하나 회계검사 후 세후 이익 범위 안에서 송금이 가능하고 비거주자 출장 관련 비용(호텔 숙박비, 비행기표, 공항세) 환전 한 도도 철폐하고 있다.

2) 환율제도

199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단일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다.

- Ministry of Finance
 - 주소: P.O.Box 30007, Nairobi
 - 전화: (254-20) 338111
 - E-메일: info@treasury.go.ke
 - 홈페이지: <http://www.treasury.go.ke/>
- 케냐의 무역관련제도 영문참조 사이트: <http://www.investmentkenya.com>

나. 현지 자금조달 방법

1) 케냐 재정환경 개요

케냐는 중앙은행, 50개의 상업은행, 7개의 비은행 금융기구(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2개의 융자회사(Mortgage Finance Company), 4개의 주택조합(Building Society), 11개의 보험회사, 3개의 재보험 회사, 6개의 개발융자기구(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가 있다. 주로 현금구좌, 저축성 또는 당좌예금, 사업자금융자, Safe deposit lockers, 지분구매 및 배분, 자금송금 및 수금서비스, 수출입자금융자, 신용장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현지 진출업체 자금 조달방법

- 케냐 거주자의 해외대출 가능
 - 케냐 거주자는 케냐에 투자목적으로 융자(Working Capital포함)가 가능하나 이자율이 런던 은행상호 이자율(LIBOR, the London Inter-Bank Rate)의 2% 이내이어야 한다.
 - 정부의 보증은 필요치 않고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 외국인 투자회사의 은행대출
 - 외국인 회사의 경우 국내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 해외송금 여부
 - 현금계정의 대금 이체에는 제한이 없다.
 -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외환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내국인은 최대 5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거래하는 상업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앙 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시 바로 처리 가능하다.

□ 대출가능 기관들

- 산업개발은행(IDB, Industrial Development Bank):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는 재정기구로 중장기 대부, 직접 주식투자, 대체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 주식, 배당금 등을 인수하기도 한다.
 - 담 당: The Managing Director, IDB,
 - 주 소: P.O. Box 44036 Nairobi Kenya
 - 전 화: (254-2) 337079, 337069
 - 팩 스: (254-2) 334594
 - Email: idbkenya@swiftkenya.com
- 산업상업개발조합(ICDC, Industr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Corporation): 정부 유일의 합작 벤처투자기업 및 주식투자의 통로로 이용되었으며, 그동안 다수의 국내외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해왔다. 주로 투자와 상업자본 대여를 한다.
 - 담 당: The Executive Director, ICDC,
 - 주 소: P.O. Box 45519 Nairobi Kenya.
 - 전 화: (254-2) 216775, 221140
 - 팩 스: (254-2) 333880
 - Email: icdctd@africaonline.co.ke
- 케냐 개발융자회사(Development Finance Company of Kenya, DFCK): 케냐 정부와 조인트한 융자회사로, ICD, Netherlands Overseas Finance Company(FMO),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CDC), The German Development Bank (DEG),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등이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 농업가공 처리업, 관광 부문에 중기 투자지원(현지화, 외화 모두)
 - 담 당: The General Manger (DFCK)
 - 주 소: Finance House, Loita Street, P.O. Box 30483 Nairobi Kenya.
 - 전 화: (254-2) 340401, 340416
 - 팩 스: (254-2) 338426
 - Email: dbk@africaonline.co.ke
- 동부아프리카 개발은행(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EADB):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외환으로 중장기 대출 가능하다
 - 담 당: The Resident Manager, EADB,
 - 주 소: Lonrho House 12th Floor Standard Street, P.O. Box 47685 Nairobi Kenya.
 - 전 화: (254-2) 340642, 340656
 - 팩 스: (254-2) 216651
 - Email: eadb.ke@africaonline.co.ke

- 케냐 산업자본(Kenya Industrial Estates Ltd, KIE): 대출 및 다른 부가 서비스를 케냐 실링화로 제공한다
 - 담 당: The Managing Director, KIE,
 - 주 소: P.O. Box 78029 Nairobi Kenya.
 - 주 소: (254-2) 530551, 530552
 - 팩 스: (254-2) 534625
 - Email: kie@nbnet.co.ke
- 케냐 주식경영사(Kenya Equity Management, KEM)와 아프리카 성장기금(The African Growth Fund, AGF): KEM은 주식 및 기간유자 등을 지원하며, 특히 현존하는 회사들의 확장사업에 주로 지원한다. KEM은 아프리카 성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제조업, 재정, 서비스 산업을 감당하는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데, 통상 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규모이다.
 - 담 당: Contact: The Managing Director, KEM Ltd.
 - 주 소: P.O. Box 62360 Nairobi Kenya
 - 전 화: (254-2) 340549
 - 팩 스: (254-2) 227147
- 국제자금협회(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IFC는 농업, 제조업, 관광업에 있어서 민간부문 투자계획의 재정을 조달하는 세계 은행의 조합 중 하나로 기한대출을 연장하고, 계획 비용의 25% 이상의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에 있어 주식을 투자 한다. 기간 유자는 보통 외화로 이루어지며, 저 금리인 아프리카기업자금(Africa Enterprise Fund)을 전담 운영하고 있다.
 - 담 당: Resident Representative, IFC,
 - 주 소: Hill Park Upper Hill Road, P.O. Box 30577 Nairobi Kenya.
 - 전 화: (254-2) 720467
 - 팩 스: (254-2) 219980
- 산업진흥원(Industrial Promotion Services Ltd, IPS): 벤처자본회사로 the Aga Khan, IFC Washington, Kenya Commercial Bank, 영국 the Merchant Bank의 소유로 지분자본의 40%까지 주식투자를 제공하며, 대출제공, 자본운영 및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제반 노하우도 제공한다.
 - 담 당: The Managing Director, IPS,
 - 주 소: IPS Building, P.O. Box 30500, Nairobi Kenya.
 - 전 화: (254-2) 228026/88, 333275
 - 팩 스: (254-2) 214563
 - Email: ipskoffice@form-net.com
- 적도 및 남부아프리카 경제개발 기구(Economic Development for Equatorial and Southern Africa, EDESA): 현지화 및 외화의 중장기 용자제공. 현지 벤처회사들의 시작부터 재편성, 확장 등에 따르는 전환가능 대출, 보증, 그리고 주식 등을 지원한다.
 - 담 당: The General Manger, EDESA Kenya Ltd,
 - 주 소: P.O. Box 56038 Nairobi Kenya.
 - 전 화: (254-2) 822920-4
 - 팩 스: (54-2) 822925, 822907
- 그 외 많은 유럽개발은행들이 케냐 벤처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the Netherlands, Overseas Finance Company(FMO), The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

ation (CDC), the German Development Bank(DEG), The Danish Development Bank(IFU) and the Swedish Fund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Africa(SFIDA)

3) 금리 및 대출조건

□ 가격결정

- 케냐 상업은행은 일반적으로 기본율에 상회하는 시세 폭에서 가격을 책정함.
- 평균율은 주로 법인에 대해 1~3%, 기타 사기업 및 개인에 10%까지임.
- 일반적으로 각 은행은 정부발행 채권 이자율의 2~3% 마진에서 기본율을 책정함.
- 융자는 전반적으로 3~5년 기한 중기 융자형태로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지원하나 케냐에는 어떤 고정비율과 기간 등을 존재하고 있지 않음.

□ 자금대출조건

-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최소 3년간의 회계감사를 득한 재정증명서
 - 12개월간의 예산 운영계획 또는 중기융자인 경우 자금유용계획
 - 사업계획서
 - 미결제권 및 채권자 명세서
 - 재정보증인 명시된 경우 상세서 및 평가
- 모든 은행은 대출자에게 운영자금의 최대 25%까지 단일 채무자 혹은 이익 소유권을 가진 그룹에게 빌려주도록 제한함.
- 일반적인 보증은 채무증권(debentures), 현물차압(legal charges over property), 현금 상호은행보증(cash collateral bank guarantees),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부모동반보증(parent co-support) 등에 의해 가능하며 무보증 기업들에는 현금사정, 사업추세, 출자자 등에 의해 좌우됨.

V. Business 참고 정보

1. 시장 특성

가. 일반 시장특성

케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발전도도 우리나라의 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열악한 실정이다. 케냐의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의 경우 원유 및 산업용 원자재가 78%를 점유하고 있어 일반소비재 시장이 크지 않은 편이며, 자동차 및 의류 등도 중고제품의 수입이 범람해 신차 딜러 및 케냐 섬유 제조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수출은 농업 가공품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케냐 산업 및 소비자용품은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등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다.

유통 및 시장 지배력은 영국 지배 당시 철도 건설로 케냐에 이주한 인도계 상인들이 자본력과 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인도계 무역상인은 주로 영국 등 유럽 및 중계 무역지인 두바이(다품종형 저가 공급 지로 시장 접합성이 높음), 인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향이 높다. 유통구조는 매우 단순하여 수입상이 수입 및 도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소매점을 보유하여 소매까지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들 아시아계 인도인들은 힌두 및 이슬람 등 종교적 연대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3세대째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 케냐 종족 사이에 경제집중 등을 이유로 점점 배타적인 시각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테러 사건들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인도계 기업인들은 케냐 외에 타 지역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려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냐는 2000년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끌고 있으며, 2006년 초부터는 EAC국 간의 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려는 동아프리카 3국 무관세 동맹이 발효됐으며, 2010년 7월부터는 EAC 공동시장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특히 제조업의 경우, 앞으로 케냐에 현지 투자를 통한 무관세 동아프리카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유통채널

케냐의 유통구조는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다품종 소량 위주의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제조업체/수입업체-중간도매상-소매상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도매상이 직접 수입 및 소매하기도 한다. 일부 다품종 상품 수요는 상당수가 두바이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한편 1990년 말 들어 케냐의 소매점 형태도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매시장을 주도하는 우추미 슈퍼나 나쿠마트 슈퍼가 있다. 이들은 Vender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관행이나 약 10~20%선까지는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요 유통업체

- Uchumi Supermarket
 - 주소: P.O.BOX 73167, Nairobi, Kenya
 - 전화: (254-20) 227001
- Ebrahims Supermarket
 - 주소: P.O.BOX 44832, Nairobi, Kenya
 - 전화: (254-20) 333010
- Nakumatt Holdings Ltd.,
 - 주소: P.O.BOX 78355, Nairobi, Kenya
 - 전화: (254-20)243907,740901
 - 팩스: (254-20)543479
 - e-mail: headoffice@nakumatt.com
- Ebrahim & ComPany Ltd.
 - 주소: P.O.BOX 40879, Nairobi, Kenya
 - 전화: (254-20) 229987
 - 팩스: (254-20) 333423,330929
- K & A Self Selection Stores
 - 주소: P.O.BOX 41631, Nairobi, Kenya
 - 전화: (254-20) 223831

2. 물가정보

가. 나이로비(케냐) 기초 통계 자료

	2006	2007	2008	2009	2010
명목 물가 상승률(%)	14.5	9.8	16.2	5.3	4.5
명목 임금 상승률(%)	4.0	5.0*	6.0*	7.2	7.8
US\$ 대비 연평균 환율	69.40	62.68	77.71	75.82	80.75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1.2월호)

나. 케냐 (나이로비) 물가 정보(2010년 기준)

번호	항 목	가격(USD)
1. 식재료		
1.1	쌀 1kg	4
1.2	밀가루 1kg	5
2. 육류		
2.1	쇠고기 등심 1kg	10
2.2	쇠고기 안심 1kg	10
3. 어패류		
3.1	냉동새우(중간크기) 1kg	14
3.2	대합조개 1kg	10
4. 낙농품		
4.1	우유 500ml	1.25
4.2	요거트 150g	2
5. 유지		
5.1	식용유 1L	2
6. 과일		
6.1	사과 1kg	6
6.2	오렌지 1kg	6
7. 채소		
7.1	양배추 1kg	3
7.2	양상추 1kg	3
8. 과자 및 당류식품		
8.1	스낵과자 130g	4
9. 음료		
9.1	탄산음료 250ml 캔 6팩	4
9.2	생수 1L	1
10. 주류		
10.1	맥주 355ml 캔 6팩	6
11. 담배		
11.1	담배 1갑	2
12. 패스트푸드		
12.1	햄버거 1개	6
13. 잡화		
13.1	치약 150g 1개	4
13.2	샴푸 400ml	13
14. 의류 및 신발		

14.1	남자정장	812
14.2	여자정장	150
15. 가구		
15.1	소파 3인용(패브릭)	2,500
16. 의료비		
16.1	의료보험료 4인가족 1년	2500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X)	50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17.1	경승용차 900-1299cc	35,000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50,000
18. 교통비		
18.1	도심 1시간 주차료	1.5
18.2	지하철 기본요금(1구간)	-
19. 통신이용료		
19.1	전화개통비 1회선	188
19.2	전화사용료 월 기본요금	50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2,500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3,000
21. 가전제품		
21.1	LCD TV 40인치	950
21.2	DVD Player 범용형	75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22.1	복사용지 1권 250매 (A4 또는 Letter Size)	7
22.2	개봉극장 입장료 1회 (성인)	8
23. 교육		
23.1	유치원 수업료 1년(사립)	15,250
23.2	초등학교(국제 학교) 수업료 1년(사립)	34,000
24. 외식 및 숙박		
24.1	패밀리레스토랑 4인	150
24.2	특급 호텔(5성급) 1박	350
25. 스포츠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50
26. 임금		
26.1	사무직 일반 초임 (대졸)	600
26.2	사무직 비서 초임 (대졸)	500
27. 이미용 서비스		
27.1	여성 헤어컷 1회	15
28. 화장품		
28.1	바디로션	10
28.2	영양크림	10
29. 관공서 요금		
29.1	여권 발급 비용	40
30. 근무환경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30.2	출산휴가일수	2 개월

3. 바이어 발굴

가. 코트라 조사대행 서비스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코트라 본사를 통해서 동 조사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행 서비스에는 크게 "바이어 발굴" 서비스와 "맞춤형 시장조사 서비스"가 있는데, "바이어발굴" 서비스의 경우 관심품목에 대한 간략한 케냐 시장정보와 함께 유력바이어, 잠재바이어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시장조사"의 경우는 특정 관심품목에 대한 바이어보다는 시장 전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조사대행 서비스는 코트라 본사 "통상조사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케냐 내에는 3~4개의 전시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며 각각 10여 회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전시품목은 종합품목, 의료기기, 건축, 농업관련 기계 및 부속품, 여행상품, 보안, 인쇄물 등이다.

케냐는 물론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회는 매년 10월 초에 개최되는 나이로비 국제무역 전시회로, 주요 바이어들이 인근 동아프리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지에서 대거 참가하므로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에는 적격이다.

다. 각종 주소록을 이용한 바이어 발굴

케냐 내 옐로 페이지 책자를 이용해 해당 바이어를 접촉하는 방법이다.

라. 참고사항

케냐 내에는 아직도 인터넷을 이용한 e-commerce 개념이 약하여 가급적 용량이 큰 e-카탈로그를 통한 홍보는 지양해야 하며 (전자메일로 첨부할 경우 용량이 너무 크면 자주 접속이 끊어져 바이어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음), 가급적 안전한 DHL 또는 EMS를 이용하여 인쇄된 카탈로그 및 샘플을 공급하는 편이 유리하다.

아직도 유력한 바이어들 중에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는 바이어들이 너무 희귀하므로 가급적 현지 KBC나 현지 주소록, 옐로 페이지 등을 통해서 바이어 리스트를 구축한 후 직접 접촉하여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식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좋다. 유력 바이어와 거래 가능성이 열린 경우는 전화나 팩스보다는 가급적 한 번 정도 직접 현지를 방문해 첫 거래를 성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케냐 비즈니스 디렉토리: <http://www.nationmedia.com/directory/home/index.asp>
- 케냐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Center): <http://www.investmentkenya.com>
 - 경제통계, 투자관련 정보, 관세법 등 유용한 정보수록
- 케냐 차(Tea) 개발연구소(Kenya Tea Development Agency): <http://www.ktdateas.com/>
- 케냐 옐로 페이지 (Yellow Pages): <http://www.yellowpageskenya.com>
 - 각종 상호별, 이름별로 Search가 가능한 홈페이지
- 케냐 일간지 Nation Newspapers: <http://www.nationaudio.com>
- 케냐 일간지 East African Standard: <http://www.eastandard.net>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케냐의 결제 관행은 일반적으로 USANCE L/C 60~90일 정도이다. 하지만 일반 은행들의 재정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가능한 L/C개설 시 우량은행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arclays Bank, 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Commercial Bank of Kenya 등의 신용장 외의 자국 내 군소은행 발행 L/C는 제3국 은행의 CONFIRM을 받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KBC나 현지 공관을 통해 거래은행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L/C at sight를 요구할 수 있으나 화학 원료 등의 경우 대부분이 DA, DP 거래가 일반적인데, 이는 현지 은행금리가 20%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NDER VALUE 등도 성행하고 있고 신변 장신구, 가전제품 등의 경우 두바이 등을 경유, 밀수품이 반입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와의 비즈니스는 통신 장애 및 비즈니스 관행상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화를 내는 것은 금물이다. 현지 상권의 대부분(75~80%)을 인도상인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 무역업무에 상당한 수완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상담자세가 요구된다. 일례로 현지 수입상들의 대부분이 두바이, 유럽, 인도 및 아시아 국가(중국, 대만, 일본)등과의 거래에 친숙하며, 두바이로부터는 수시 연락 및 결제하는 요령에 능란하다. 자동차 부품이나 석유류의 경우 상담 중에도 직접 두바이 공급업체에 가격을 요청하여 상담 시 가격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 세 가지

1) 제조업체, 바이어 및 딜러구분이 불명확

열악한 제조시설 기반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도 수입과 유통을 겸하고 있어 제조업체, 바이어 및 딜러구분이 불명확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가격지향적인 시장이면서 최종 소비가는 고가임

소득수준이 낮아(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요 동아프리카 3국 평균 1인당 GDP 300달러 이하) 가격을 심하게 따지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최종 소비단가는 높은 관세, 부가세(18%) 및 과다한 마케팅 비용으로 높은 편이다.

3) 인도상인이 시장 지배

역사적으로 영국 식민지 지배시대에 인력으로 유입된 인도인들이 상술과 근면성을 토대로 동아프리카 상권을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인도인 기업 오너는 유럽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지에 가족이나 대리인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나.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

1) 가격비교에 당하지 말 것

현지 바이어, 특히 인도인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제품 구매행위 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업체로부터 견적을 징구(徵求) 후 또 다른 한국

업체로부터 견적을 끝도 없이 비교해 구매의사를 결정하므로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밀도는 견적을 요구하면 과감히 거절하도록 한다.

2) 입찰 참가 시 에이전트와 확실한 계약관계 유지

대형 조달시장 참가 시 수주활동에 에이전트의 역할이 필수적이거나, 외국 공급업체들과 현지 에이전트 간에 법정시비가 많아 에이전트 계약 시 양측 권리 및 의무관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3) 급할수록 두들겨 볼 것

급한 오더일수록 함정이 많아 첫 거래인 경우 위험성이 높은 외상거래(D/A)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정이 급한 바이어 측에서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일례로, 국내 D사는 케냐 바이어에게 2006년 9월 자동차 필터 3만 달러 상당을 D/A로 수출하고 아직까지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고, K사의 경우 금년 4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납품할 난민구호용 텐트를 급히 찾는 바이어 신용만 믿고 D/A로 물품을 선적했다가 대금 회수도 지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바이어와 거래 시 가능한 L/C 거래를 유지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외상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장기간 거래로 신용이 확인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되 이 경우도 최종 선적분의 대금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평소 D/A 거래분에 대해 충분한 마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가. 주재국 사전 선적 전 검사 제도 변경으로 인한 애로사항

케냐 정부는 대 케냐 수출품에 대하여 지난 2005년 7월 1일부로 선적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 적합 자격증(Certificate of Conformity)을 제시하도록 수출입법을 개정해 한국 수출업체의 경우는 선적전 수출 적합 자격 검사(PVoC, 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대행업체로 국제 검증 기관인 Intertek을 지정했으며, 이 기관으로부터 수출 적합 자격증(CoC)을 취득해 통관 시 제시하도록 했다.

새로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대행기관을 통해 품질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등록된 품목의 경우는 총 FOB의 0.425% (또는 최소 USD 180달러)를, 자격증 취득 품목의 경우는 총 FOB의 0.25%(또는 최소 USD 180달러)를, 기 등록이나 자격증 취득이 안 된 신규 품목의 경우는 총 FOB의 0.475%(또는 최소 USD 18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케냐 정부에서 모조품 및 불량품 수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지만, 소량 다품종을 선호하는 케냐 수입업자 편이나 한국 수출업자의 편에서는 제품마다 자격증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제품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수출에 상당한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8년 기준 케냐 정부 차원에서 관련 국제 검사기관과 진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별다른 제도적 개선 방안은 없는 형편이다.

나. 중국 모조품 범람으로 인한 한국 제품 동반 평가절하 문제

상기 선적 전 사전 검사 제도의 변경 이유 중 하나인 중국제품의 현지 모조품 또는 기준 이하 제품의 범람으로 인해 케냐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입장인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통한 케냐 시장 진출, 또는 한국 유명 브랜드 제품의 유사제품(특히, 휴대폰, CDMA 전화기 등)의 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마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정부차원의 보호장치 취약점

현지 투자 진출 시 투자 항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노동력과 자원을 현지에서 수급하고 자금과 장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분야들이 많으나 (각종 인프라 사업, 플랜트, 제조업 등)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서 정부차원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본적인 보호장치가 부재한 점이 적극적 투자 진출의 애로사항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사례

1) 전력기자재 국제입찰 성공사례

한국의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인 H사 2003년부터 나이로비 KBC 지사화사업에 가입, 현재까지 전력분야 국제입찰에 수차례 낙찰하여 지난 2003-2008년간 총 3,000만불 규모의 수주를 진행, 현지 주요 전력기자재 발주처의 파워벤더로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시장 파악을 통해, 국제입찰 가격 오퍼시 케냐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지 투자법인의 경우 8%의 가격 우대 특혜 조건을 부여,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파악, 2009년 부터는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H사가 현지 전력기자재 분야에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데는 두가지 핵심 성공요인이 있다.

첫째, 유력 에이전트 발굴 - 신축성과 인내심: 2003년 나이로비 KBC에 지사화사업을 가입할 당시에 동 한국업체는 그동안 성적이 전무한 현지 에이전트 A사와 향후 관계설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던 상태였다. 특히, 기존 에이전트와의 거래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에이전트가 구축한 관련인맥을 통해 상당한 횡방을 놓을 수 도 있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규 에이전트를 덩싹 받아들이는 것 또한 위험부담이 있었다.

결국 한국업체는 나이로비KBC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 6개월이상 기존 에이전트에 대한 심도있는 뒷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나이로비KBC에서도 새로 출범한 정권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발굴, 추천하였다. 그 이후 때마침 나이로비KBC에서 주최한

'나이로비 한국상 품전시회'에 참가, 지사업체는 기존 에이전트와 신규 에이전트를 직접적으로 면담하면서 최종 파악한 후, 결국 신규 발굴한 에이전트를 통해 현지 시장진출을 개진하기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기에 이른다. 이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장 특성에 따라 한국기업이 신축성과 무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장기적 시장집권 - 제품 인지도와 신뢰도가 최선: 케냐내 전력기자재 입찰에는 인도에서 최소 3-4개사, 중국에서 5-8개사 등이 집중적으로 각축전을 벌여 왔었으며, 한국에서도 그동안 H사외에 1-2개사가 수주를 위해 노력을 해왔었다.

하지만, 2007년이후 제조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던 제안이 해지되고, 현지 투자업체에게 가격심사시 8%의 특혜를 적용하면서 인도계에서 8-10개사, 중국에서 10-12개사, 그 외 현지 업체들이 5-8개사 수준으로 과열경쟁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경쟁사들은 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최저가격 오퍼 경쟁을 벌이기 시작, 제품 사양은 입찰 스펙대로 내고 가격은 도저히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식으로 입찰하였으며, 실제로 몇 차례 수주를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의 H사는 나이로비KBC의 권고를 받아들여 끝까지 제품 품질과 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몇 차례 제대로 된 사양과 최선의 가격으로 입찰을 시도, 결국 번번히 실패한다.

결국 한국업체와 나이로비KBC는 “우선 따먹기”나 “끝까지 신용과 제품 품질 유지”나 하는 두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그런데, 형편없는 가격으로 낙찰된 몇 인도업체들이 공급한 제품들이 결국 현장에서 처음부터 오작동 또는 폭발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현지 신문에 기사화까지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결국 2009년에 접어들면서 케냐전력청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질타를 모면하기위해 현저하게 부족한 긴급 물량에 대하여 내부오더를 진행,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제품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H사에게 상당량의 제품을 직접 오더하였으며, 가격도 2년전에 정식 수주를 통해 공급했던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결국, 2009년 초에 국제원자재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여서, H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순이익이 2배이상 남는 거래를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지의 정부조달시장이 인맥을 통해서, 뒷거래로, 또 한탕주의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관행이라고는 해도, “제품에 대한 품질과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을 점유하는 좋은 성공요인이 된다.

2) 아프리카 맞춤형 상품 성공사례

2009년 케냐는 최대 대형유통점인 나쿠마트 (Nakumatt) 화재사고로 26명이 사망 또는 실종 되었으며, 나이로비 북서부지역인 몰로(Molo)에서 송유차량 전복 화재사고로 111여명이 사망하는 등 수차례의 대형 화재사건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었으며, 현지 언론들도 헬리콥터로 산불을 진압하는 호주의 소방 사진과 나뭇가지와 옷으로 산불을 진압하고 있는 케냐 사진을 나란히 게재 하면서 소방 및 관련 재난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케냐 현실을 지적하는 등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때, 나이로비KBC를 통해서 현지 형편에 맞는 앰블런스 겸용 다목적 소방차 구매를 원하는 현지 바이어의 인과이어리를 발굴, 소방차, 구급차, 특장차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주)오텍에 주선이 되었으며, 2009년 소방안전박람회 참관 기간동안 나이로비 KBC는 바찾사와 협력하여 동 건을 적극 지원하여, 총 10대분 1백만불 규모의 계약을 유도하게 되었다.

2009년 연말, 동 차량의 주 수요자인 나이로비개발부에 차량 전달식에는 나이로비 개발부장관이 직접 식장에 참가하여 탑승시연을 보였으며, 현지 방송에서도 특별뉴스로 방영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한국업체도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코트라본사 추천으로 한국업체가 KBC K1기업열전에 선정되어 2010.4월초에 케냐를 방문, 현지 촬영을 시행하여현지 실 구매처인 나이로비개발부 장관과 차관, 실 사용자인 Thika시의 시장 등의 인터뷰와 Thika시에서 동 장비를 활용한 소방방재 시연 및 구급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의 촬영지원은 물론 동 장비의 사용법 현장교육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약 5개의크고 작은 슬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소방차가 진입하기에 너무 비좁고 소방용 용수 공급이 거의 불가하여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반면에 동 다목적 소방차는 소화용수를 탑재하여 협소한 골목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 비상시 앰블런스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현지 특성에 가장 맞는 유용한 장비로, 향후 현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맞춤형 상품 시장"을 개발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이사화물 통관 및 수령

이사 화물이 케냐 뽀바사 항구나 NAIROBI(EMBAKASI)에 도착하면 현지 통관 업체를 통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이삿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서류는 통관신청서, B/L 및 PACKING LIST 등을 첨부해야 한다. 통관 시 소요기간은 보통 1~2일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급행료 등이 요구될 경우도 있다.

뽀바사 항구가 상시 적체 상황이어서 간혹 부산-뽀바사 구간보다 뽀바사에서 하역 및 나이로비 운송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뽀바사-나이로비 육로 수송은 통상 1개월여 소요되며, MOMBASA-NAIROBI 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주일이다.

통관 수송된 컨테이너는 집 앞까지 운반되므로 SEAL 등을 확인한 후 직접 개봉할 수 있으며 하역도 통관업자를 통해 인부를 고용하면 편리하다. MOMBASA항-나이로비 간 육상 통관 대행 시 운송료 및 통관수속료 등 제반 경비는 약 1,500달러 정도이다.

나. 주택 구입 및 임차

케냐의 치안 악화로 가능하면 집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독 주택은 비교적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나 도둑 등 외부인의 침입이 용이해 별도 경비 및 경비 견 등을 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택계약은 대부분 Lloyd Masika 등 주택 및 아파트 임대 소개 전문회사를 통하여 임차 건물을 물색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연장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률은 통상 10% 전후이다.

임차 보증금은 2~3개월분 월세를 요구하며, 월세는 3개 월 단위 선불, 임차 만료 시 거의 1개월분을 수리비로 상계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임 주 시에 건물주 임회 하에 건물의 창문, 출입문 등 내부상태 및 정원 화초 등을 확인해 두 어야 만료 시 원상복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지 아파트 및 주택은 대부분 Unfurnished 이며 Furnished된 경우 거의 50% 이상 비싸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관련 보험제도는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나 치안 불안 등을 고려해 고가품 등 품목별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권장한다.

주택 계약 시와 공동주택 입주 시, 전화·수도·전기 가입 시 중계업체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 하나 일반 주택의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세는 주인이 일괄 처리해 매달 입주자에게 징구 하거나, 아예 입주자명으로 이전해 지불하게 할 수 있다. 물세는 월세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입주자가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는 대부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다. 은행 구좌

주재국은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자유화하여 외국인인 현지은행 및 외국계 은행에 외환구좌와 현지화 구좌 개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외화구좌 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 및 최소 예금을 입금시키면 된다.

라. 교육여건

케냐 내의 학교는 현지 학교와 외국인 학교로 구분된다. 현지 학교는 수업료가 저렴하나, 수준이 낮고 환경이 열악해 권장하지 않으며, 외국인 학교는 영어학교, 불어학교 등이 있고, 한국인의 경우 주로 International School을 권장한다.

2세 반 또는 3세부터 Preparatory School(유치원)에 다닐 수 있으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은 International School of Kenya를 비롯한 Braeburn School(영국계, 유치원·초등학교·중·고교 과정), Hillcrest School(영국계, 유치원·초등학교·중·고교 과정), Rosslyn Academy(미국계, 유치원·초등학교·중·고교 과정) 등이 있다.

나이로비 내 외국인 학교

학교명	주 소	전 화	팩 스	전 자 메 일
Int'l School of Kenya	P.O. Box 14103, Nairobi	254-20-582 421	582-451	iskadmin@isk.ac.ke
Hillcrest Sec. School	P.O. Box 24819, Nairobi	254-20-882 222	882-350	admin@hillcrest.ac.ke
Braeburn	P.O. Box 45112, Nairobi	254-20-572 572	862-450	braeburn@net2000ke.com
Rosslyn Academy	P.O. Box 14146, Nairobi	254-20-520 036	521-306	rosslyn@rosslyn.icconnect.co.ke

□ 인터내셔널 유치원

- Riverside Farm Nursery School
 - P.O. Box 47301, Nairobi
 - 전화: 254-20-442079
- International Montessori School(* 한국인이 운영)
 - P. O. Box 10364, Nairobi
 - 전화: 254-20-569701, 5761110, 5761112

* 케냐 국제 및 현지 학교 정보

=> 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School_of_Kenya

마. 전화신청

가정용 유선전화는 전화국에 신청하면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유선전화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전화통을 전화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그 후에 한국산 전화기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요즘은 유선전화가 고장이 잦고 비용이 비싼 관계로 이동전화의 인기가 높다. 2008년 기준 Safaricom, Zain, Yu 등 3개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각각 1,200만 명, 600만, 20여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통신은 한국의 CDMA 방식과 다른 GSM 방식을 쓰므로 휴대폰과 연결용 키트 그리고 선불용 전화카드를 구매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이 중단되나 요금을 충전하면 별도 벌금 없이 다시 동일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도 후불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이용요금이 저렴하므로 케냐에 정착이 확정된 후에 사용하면 유리하다.

바. 정부등록

입국 시 우선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한 케냐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정문-난 스튜디오 옆, 전화번호: 3785-2903/4) 에서 취득하거나 나이로비 공항 입국 시 입수 가능(24시간 운영)하며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직접 발급받을 경우에도 50달러가 소요된다.

관광비자로는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필요 시 이민국에서 3개월 갱신이 가능하나 더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제외하는 제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방문비자 상태에서 현지 투자를 근거로 사업자 비자(H Class)로 변경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3~6개월 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근거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반이어서 처음부터 모든 구비서류를 잘 갖추어 사업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비자(A class)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는 재정회계관리, 특수기술보유, 친인척 관계 등에 한해 이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주재국에 정식 체류비자가 확보되면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사무실을 통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1년 이상 방치할 경우는 연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교관 및 공무원의 경우는 대사관을 통해서 주재국 외무부를 거쳐 외교관 ID를 부여받게 되며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사. 자동차 구입

케냐는 대중교통 수단이 낙후되어 한국인이 현지 정착 시에는 차량 구입이 필수적이다. 외교관의 경우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은 정규 수입 통관절차를 밟아 수입할 수 있다.

자동차 수입 및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B/L원본, Packing List 원본 등은 각각 4~5매가 필요하다. 2006년 이후 현지법으로 왼쪽 핸들 차량과 8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는 수입이 금지됐다.

차량운행 허가(Road Licence)는 차량 등록소로부터 1년 간격으로 취득하고, 운전면허는 일단 본국에서 출국 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 휴대함이 바람직하며, 현지 부임 후 현지 면허증으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차량보험관련 제3자 보험은 의무적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고되나 사고 후 보험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중형차의 연간 보험료는 약 1,000~2,000달러 정도이다.

유류는 통상 현금 혹은 Credit Card(일부 주유소에서만 가능)로 대부분 주유소에서 주유 가능하며 보통 유연 휘발유나 디젤이 가용하다.

케냐의 경우 도로사정이 극히 불량하므로 4륜 구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파리에는 4륜 구동차가 필수적이다. 시내 주행 시에는 세단도 무난하다. 현지에는 프랑스(Peugeot), 일본(Toyota), 독일(Benz) 등 외국 차량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국산(현대 및 대우, 쌍용 무쏘, 기아 스포티지)차량이 널리 보급되어 인기가 높으며 부품 구입을 포함한 서비스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차량용 스페어 파트의 가격은 한국 기준 5~7배 정도 비싸 해당 차량용 소모 부품은 이삿짐으로 송부하는 것도 절약방법이다.

□ 운전 시 유의사항

케냐는 우측핸들 시장으로 차량 운전방식이 영국과 같이 오른쪽(Right Hand Drive)이며 교차로도 이른바 Roundabout(로터리)으로 연결되어 있어 처음 운전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로터리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 및 오른쪽 운행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대부분 로터리 및 가로에는 신호등, 가로등이 없거나 불량해 운전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복잡한데다 운전 습관이 매우 난폭하고 무질서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최고 속도는 80km이나 고속도로(우리나라 국도 수준도 못 미침)에서는 많은 차량이 100Km 이상 질주하며 현지 봉고형 버스인 마타투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발생률이 높다.

안전벨트는 생명선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로등이 거의 없고 있어도 대부분 희미해 피부 색깔이 어두운 현지인들이 대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야간 운전 시 특히 조심해야 하며 대부분이 2차선 도로에다 하이빔을 사용하고 있어 추월 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교습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시간 교습 후 용이하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운전교습소: Automobile Association of Kenya(AA)
- 취득 소요시간: 총 20시간
- 소요경비: 약 500달러

아. 생필품 구입관련

1) 전기전자 제품

- TV 및 Video 방식: PAL 및 VHS(Multi시스템 권장)
- 전기시스템: 220-240V/50HZ

케냐의 경우 전압이 고르지 못하고 모터가 포함된 가전제품의 경우 Hz가 달라 한국에서 가져오는 가전 제품의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일시적인 전압 상승에 대한 가전제품 보호를 위한 전압안정기(stabilizaer)가 매우 필요하다.

전압 안정기는 현지에서도 구입 가능하나 비싼 편이다. 한국산 가전제품인 경우 현지 가전 에이전트로부터 대부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가구, 비품 및 장식품

케냐 현지 제작된 제품은 품질수준이 비교적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편이며, 기술 제휴 제품 혹은 수입품은 아주 비싸므로 이삿짐(컨테이너) 속에 식탁, 침대, 책상, 소형 장식장 등을 가져오는 것이 편리하다.

타월, 침구류는 고가이므로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가정상비약, 화장품 등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사화물 탁송과 관련해 아프리카 지역은 각종 도난 사고가 빈발하므로 이사화물은 반드시 컨테이너에 넣어 Door to Door(부산-NAIROBI)로 탁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분실 또는 도난사고에 대비 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3) 한국 식료품

나이로비에는 한국 식품점이 2~3개 있어 두부, 콩나물, 숙주나물, 고추장, 된장 등 제한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 품귀되는 때가 있으나(배추, 상추, 무, 당근, 시금치 등) 일반 야채류는 현지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다.

단, 현지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비교적 비싼 된장, 고추장, 간장, 냉면, 조미료(각종), 라면, 김, 일정 기간 후 현지에서 고추장, 된장을 직접 담글 수 있도록 고춧가루, 메주가루 등, 건어류 일절(멸치, 북어포, 오징어포, 대구포 등) 및 장기 보관에 문제점 없는 통조림류 등은 이삿짐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다.

4) 주방용품

나이로비는 고지(해발 1,650m)인 관계로 압력 밥솥 1~2개는 필수적이며, 한국에서 구비해 올 때는 유럽에서 사용이 가능한 스펙의 제품으로 반드시 전자식을 피하고 전열식을 구매해야 한다.

자. 병원 및 기타 주요 연락처

종합병원 응급실	NAIROBI HOSPITAL	2722160 Ext. Emergency 0722-204114/5, 0733-6393 01/2
	AGA KHAN HOSPITAL	3740000 - 3740012
	M.P.Shah Hospital	374-2763~7
야간약국	KENMART PHARMACY(KENYATTA 병원 내)	2726148
	NAIROBI HOSPITAL	2714400
	AGA KHAN HOSPITAL	3742531
경찰기관	CENTRAL POLICE STATION	222222~5
	KILIMANI POLICE STATION	2722222
	MUTHANGARI POLICE STATION	4442800
	KASARANI POLICE STATION	803310
	MUTHAIGA POLICE STATION	3762611
	INDUSTRIAL AREA STATION	557945,558393
화재 시	FIRE STATION	222181/2
앰불런스 요청	ST. JOHN AMBULANCE	210000, 0721-225285
	FLYING DOCTORS SERVICE	501280
차량 고장 시	3S Auto(한국인 운영)	4443880
	AUTOMOBILE ASSOCIATION OF KENYA (A.A.K)	2720382/2720383
각종 고장신고	전화 고장신고	987
	전기	주간: 225352/3742742 야간: 3742742/225352
	수도	2723103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MOMBASA PENNY PROFIT STORE(MPPS)	766534/762577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아프리카의 동부 인도양에 연하여 적도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열대 해안 지대로부터 사바나 초원 지대, 고원 및 반사막 지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원이며 서부 지방은 강우 풍부, 북부 지방은 건조, 해안 지방은 열대성 고원 다습한 반면 고지대는 저습 냉량하다.

1) 지역별 기후

케냐의 지역별 기후는 다음과 같다.

- 서부 케냐(Western Kenya)
 - 고도 1,157m, 강우량 최저 60mm, 최고 200mm, 최저 기온 14~18℃, 최고 기온 30~34℃, 덥고 연중 강우가 계속되며 열대림 보유
- 리프트 계곡 및 고원(Rift Valley-Highlands)
 - 고도 1,661m, 강우량 최저 20mm, 최고 200mm, 최저 기온 10~14℃, 최고 기온 22~26℃, 온대성 기후로 3~5월과 10~12월 연 2회에 강우기가 있음, 농업 재배 지역으로 적합
- 북부 및 동부 케냐(Northern and Eastern Kenya)
 - 고도 128m, 강우량 최저 0~80mm, 기온 최저 22℃, 최고 34℃, 반 사막 또는 사막 기후로 목축업 지대
- 해안(Coastal Belt)
 - 고도 17m, 강우량 최저 20mm, 최고 240mm, 기온 최저 22℃, 최고 30℃, 고온 다습하며 해변가 지역은 농업에 적합

좀더 구체적인 정보는 케냐 관광진흥청(Kenya Tourist Board)에서 관리하는 영문 홈페이지 <http://www.magicalkenya.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출장 시 복장

나이로비 지역에 출장을 가는 경우, 고지 기후 특성상 아침 저녁이 통상 쌀쌀한 점을 감안, 양복의 경우 6~9월 중 춘추복, 기타의 경우 춘하복 또는 춘추복이 적당하다. 평상복은 반팔과 긴 팔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6시간 (GMT +3)으로 한국이 24:00시일 때 케냐는 18:00시이다.

2) 근무시간

케냐 관공서 및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17:00이며, 이외 은행, 우체국, 식당, 상점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 은행: 통상 09:00~16:00시(토요일 오전 09:00~13:00, 일요일 휴무)
- 우체국: 통상 09:00~17:00시(토요일 오전 09:00~13:00, 일요일 휴무)
- 식당: 통상 12:00~22:00시(토·일요일 동일)
- 상점: 통상 10:00~17:00시(토요일은 평일과 동일, 일요일 휴무)

다. 주요단위

1) 도량형

길이는 미터법(m), 야드법(yd) 혼용, 면적은 주로 피트(feet)법, 유체량은 리터법, 무게는 Kg를 상용하고 있다.

2) 학용품

복사 용지는 A4, A3등 유럽 사양을, 파일용 바인더도 3공 바인더 대신 2공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다.

3) 전기규격

220/240V, 50Hz, 삼상이며 전압이 불안정하여 가전제품 등 모터가 포함된 제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주로 고가 가전제품은 Surge Protector나 컴퓨터용 전압안정기 또는 UPS를 사용한다. 면도기의 경우 일부 호텔에서 110/220V 겸용 콘센트가 있기도 하다. 전원 플러그는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다목적 콘센트를 구입해야 한다. (영국과 유사)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리나라 국민은 케냐 입국 시 입국 비자가 요구되며, 입국 시 3개월 체류가 가능한 관광 비자를 공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 비용은 싱글 비자U\$25, 복수비자 (1년 유효)는U\$100 이며, 장기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케냐 이민청에 구비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1~2년짜리 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2~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나 발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한 비공식 비용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비자 발급처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한 케냐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동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명칭: 주한 케냐 대사관
- 업무시간: 오전 9시 30분~12시, 오후 2시 15분~3시 30분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43-36
- 전화번호: 3785-2903/4
- E-메일: kenyaemb@kornet.net
- 위치: 이태원 Grand Hyatt 호텔 정문/ 난 스튜디오 옆

3) 출입국 절차

케냐 입국 시 비자 외에도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인 Yellow Card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요즘은 Yellow Fever 감염지(주로 북서부 아프리카) 제외지역에서 도착하는 경우는 거의 검사를 하지 않으나 만약을 위해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고 그 증빙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1회 접종 시 10년 유효) 특히 장기 체류자, 노약자, 자주 방문하는 여행객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입국 신고 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샘플이나 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는 간혹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샘플임을 입증하면 통과 시 문제가 없으나 간혹 관세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4)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취업 및 파견 근무를 위한 장기 체류의 경우 단기 입국 후 이민국으로부터 Work Permit을 즉시 신청해야 한다.

5) 예방접종

황열병 주사는 가능하면 한국을 출발할 때 비행 탑승 10일 전에 인천공항 내의 예방 접종실에서 미리 받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정부합동청사 민원실(Tel: 032-740-2703)에 예약이 필수적이다. 접종 후 노란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카드는 여권과 함께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

- 접종 장소: 인천 국제공항 내 정부 합동 청사 1층 국제 검역소 (Tel: 032-740-2701), 국립 의료원
- 접종일: 출발 최소 10일 전까지
- 유효기간: 접종 후 10년간 유효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 1주일 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 1회 정도의 복용으로 예방 가능하다.

케냐를 출국한 이후라도 감기와 비슷한 발열, 오한, 구토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말라리아균의 감염 여부부터 검진해야 하며, 출국 전 현지에서 말라리아 약을 구입하여 휴대함도 필요하다.

마. 환율/환전

1) 평균 환율

1999년부터 4년간 케냐 실링화가 계속 절하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3년에 들어서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2004년 다시 절하되었으며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다시 강세를 보였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환율	69.40	62.68	77.71	75.82	80.75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1.2월호

케냐 정부 은행(Kenya Commercial Bank)의 공시 환율은 <http://www.kcb.co.ke/forex/rates.asp>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화, 일본화 및 인근 아프리카 총 16개국의 환율을 확인할 수 있음)

2) 환전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 Forex라 불리는 외환전문소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환전할 수 있다. 환전은 외환전문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환전 시 여권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고, 남은 현지화는 달러로 역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의 경우 T/C 보다는 현금이, 현금보다는 T/T가 환율에 유리하다.

□ 주요 환전소

- Orion Forex Bureau
 - 전화: 254-2-337189, 213910,
 - 팩스: 254-2-214316
 - 주소: Merchantile House, Loita Street, Nairobi
- Central Forex Bureau Ltd.
 - 위치: Posta Sacco Plaza
 - 전화: 254-2-226777, 331443
- Maxfair Forex Bureau Ltd.
 - 위치: Standard 빌딩
 - 전화: 254-2-226212, 228842
- Nairobi Forex Bureau Ltd.
 - 위치: Muindi Mbingu Street
 - 전화: 254-2-244767
- Nairobi Bureau De Change Ltd.
 - 위치: 나이로비 국제공항 내 Unit 2
 - 전화: 822884, 820777

이외에도 30여 개의 환전소가 산재한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American Express는 사용이 거의 어렵고, Master Card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나 주로 비자카드가 통용되고 있어, 케냐 방문 시에는 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 시 주요 호텔에서는 보안을 위해 카드의 마지막 3자리 수를 스티커로 가리도록 서비스해 주는데, 만약 그런 서비스를 해 주지 않더라도 케냐 내에서 결재를 할 때는 반드시 3자리 수를 임시로 가리고 쓰는 것이 안전하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 국제

케냐 내 취항하는 국제항공으로는 British Airways, Ethiopian Airlines, Egypt Airlines, South Africa Airways, Emirates Airlines, Qatar Airlines(2006년 1월부터 취항), Kenya Airways와 코드 셰어를 하고 있는 KLM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항공 예약은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이용하며,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예약도 가능하나 가격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 우리나라와의 교통

우리나라와는 직항 노선이 없어 유럽, 인도(뭄바이), 중동, 남아공 등을 경유한 항공노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항공 요금은 왕복기준 통상 1,300~1,500달러 내외 정도이다.

□ 주요 항공노선

- Emirates Airlines: 나이로비-두바이 구간은 매일 출항, 요금 2,000달러 내외
 - 나이로비-두바이-인천
- Cathay Pacific: 요금 1,900달러 내외
 - 나이로비-요하네스버그-홍콩-인천(나이로비-요하네스버그 구간 Kenya Airways 이용)
 - 나이로비-두바이-홍콩-인천(나이로비-두바이 구간 Kenya Airways 이용)
- Kenya Airways: 요금 1,900달러 내외
 - KLM과 코드셰어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이후 나이로비-방콕간 신 항로를 개설함.
- QATAR항공: 요금 1,900달러 내외
 - 2006년 1월에 첫 취항함.
 - 나이로비-도하-인천으로 연결되며 매일 1회씩 운항중

2) 주재국 내 교통

버스, 승합차(MATATU), 택시 등이 운행되고 있으나 혼잡하고, 차량이 노후화되어 불결하므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큰 호텔 주변에는 깨끗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으나 비교적 비싼 편이다. (시내 30분 이내 단거리 요금: 약 12달러)

나이로비-뭄바사 구간에는 기차(침대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1, 2, 3등으로 구분되며 야간운행)가 운행되고 있어 편리하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교통수단별 요금표(2010년 기준)

교통수단	행선지(구간)	실링	미화
Matatu	나이로비 시내	40/=	\$0.46
	나이로비 시외	60/=	\$0.76
	나이로비-Thika 타운	80/=	\$0.92
	나이로비-Athi River 공단	80/=	\$1.23
Domestic Flights (왕복)	Nairobi - Mombasa	11,555/=	\$180
	Nairobi - Kisumu시	11,130/=	\$148
	Nairobi - Masai Mara 공원		\$250
	Nairobi - Amboseli 공원		\$220
Railways (왕복)	Nairobi - Mombasa	6,320/=	\$97.2
	Nairobi - Kisumu	6,000/=	\$92.3

나이로비에서 인근국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여행할 경우는 Kenya Airways가 매일 2~3회 운항하고 있어 가장 이용이 용이한 편이며 우간다의 경우는 왕복 340달러, 탄자니아는 390달러가 소요된다.

3) 주재국 내 국제통신

주재국의 통신 및 전화사정은 아프리카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매우 뒤떨어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비용도 무척 비싸다. 일반전화 이용 시 한국 통화비용은 1분당 2달러5센트가 기준이나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 시 1분당 10~15달러씩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불편하나 전화국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구매하여 국제전화 가능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다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내 중심가에 간혹 공중전화 시설이 있으며 사용 요금은 시내구간인 경우 3분에 3실링이다.

- 한국 호출: 000+82+지역번호+전화번호 (000은 국제전화 번호, 82는 한국 국가번호)
- 한국에서 나이로비 호출: 국제전화번호(예:001)+254(케냐)+20(나이로비)+현지 전화 번호

출장 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는데 휴대폰은 공항에서 바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점은 Bon Voyage이며 약 67달러의 Deposit(폰 반납 시 되받음)과 27달러 상당의 카드료를 지불하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1일당 사용료는 약 2달러에 불과하며 통화료는 27달러를 초과 한 경우 폰 카드를 구입해 충전하면 된다. 그 외 특별한 가입절차는 없다. 폰 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3달러, 6달러, 12달러짜리가 있다. 참고로 이곳 휴대폰은 한국의 CDMA 방식이 아닌 유럽의 GSM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에서 로밍 서비스는 가능하나 비용이 비싸고 현지에서 통신 상태와 품질이 좋지 않아 현지 휴대폰을 대여해 국제전화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4) 우편

케냐 내 국내우편료는 기본 10g당 6실링, 서울까지의 우편료는 25실링 정도이다. 특히 우편 배달의 경우 주재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각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Post Box)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우편함을 개설 이용하는 경우도 관공서, 회사, 자영

업자 등 일정수준 이상 생활자이며 하류층 일반서민은 우편함(주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편물 수취는 이용자가 직접 수·발신해야 하며, 소포는 통상 보관료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특사우편으로는 DHL, EMS, TNT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류의 경우 500g 기준으로 D.H.L은 3,885실링(미화 52달러), EMS는 2,204실링(미화 29달러), TNT는 4,023실링(미화 54달러) 수준이며, 현지 우편 시스템이 열악하고 중요한 물건들은 자주 분실되는 경향이 있어 특사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카탈로그 등의 발송 시 세관에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인보이스상 금액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 호텔/식당

1) 일반 호텔

케냐는 관광지로부터 5성급 호텔부터 모텔수준까지 다양한 호텔이 있다. 대부분 케냐 전역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낮에도 강도가 빈번하며, 특히 밤에 외출은 삼가야 한다.

□ KBC 거래 주요 호텔정보

- Laico Regency Hotel(5성급)
 - 소재지: 시내 중심가(KBC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
 - 숙박비: 싱글- U\$256, 트윈 U\$307 (KBC할인협정 없음)
 - 전화: 254-20-2211199/2887000
 - 팩스: 254-20-2217120
 - 전자메일: reservations@laico-regency.com
- Nairobi Serena Hotel(5성급)
 - 케냐 최고급 호텔.
 - 소재지: 시내 외곽(KBC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
 - 숙박비: 싱글 \$345, 트윈 U\$400(KBC할인협정 없음)
 - 전화: 254-20-313800
 - 팩스: 254-20-2725184
 - 전자메일: nairobi@serena.co.ke
- Safari Park Hotel(5성급)
 - 한국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 호텔('60년대 전낙원 씨 설립): KBC는 물론 대사관 및 교민회 등에서 연말 송년회, 볼거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소재지: 시내 외곽지역(KBC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
 - 숙박비: 싱글 U\$170; 트윈: U\$200 (KBC할인협정 요금)
 - 전화: 254-20-862222
 - 팩스: 254-20-802477
 - 전자메일: safariht@africaonline.co.ke
- New Stanley Hotel(5성급)
 - 나이로비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 (1902년 설립)
 - 소재지: 시내 중심가(KBC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숙박비: 싱글 U\$175, 트윈 U\$225 (코트라 할인협정 요금)
- (일반요금은 싱글 U\$420, 트윈 U\$470)
- 전화: 254-20-275-7000/316377
- 팩스: 254-20-2229388/2249757
- 전자메일: thestanley@sarovahotels.com

○ Panari Hotels (5성급)

- 한국 기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 소재지: 시내 중심가(KBC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숙박비: 싱글 U\$170, 트윈 U\$210 (코트라 할인협정 요금)
- 전화: 254-20-3946000, 828990/3, 3574601/2
- 254-725-694600/1/2, 733-694600/1/2
- 팩스: 254-20-828985
- 전자메일: info@panarihotels.com

○ Hilton Hotel (5성급)

- 소재지: 시내 중심가(KBC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숙박비: 싱글 U\$190, 트윈 U\$230 (코트라 할인협정요금)
- (일반요금은 싱글 U\$397, 트윈 U\$437)
- 전화: 254-20-2790000
- 팩스: 254-20-2226477
- 전자메일: Hilton.nairobi@hilton.com

호텔 정보는 www.nationaudio.com/News/DailyNation/whatson/current/hotels.htm 참조.

2) 식당

케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양식, 한식, 일식, 중국식, 이탈리아식 등 다양한 종류의 식당이 있다. 패스트푸드는 남아공에서 진출한 Wimpy, Steers 등의 일부 체인점이 있어 간단한 점심도 가능하다. 대부분 서양식 식사는 1인당 20달러 전후이다.

현지 고유의 서민 음식은 우갈리(옥수수 가루로 쏜 죽과 비슷한 음식)에 케익을 곁들여 먹는 것이며, 고기 요리로는 양이나 염소고기로 바비큐처럼 요리한 냐마초마(Nyama Choma)가 유명하다.

○ 일반음식점

- INTERCONTINENTAL HOTEL(양식, 020-320-0000)
- HILTON HOTEL(양식, 020-279-0000, 0350)
- SERENA HOTEL(양식, 020-284-2000)
- SAFARI PARK HOTEL(양식, 중국식, 아프리카식, 이태리식, 일식, 020-363-3000)
- TRATORRIA (이태리식, 020-340855)
- Tychi (태국식, New Stanley Hotel내에 소재, 020-228830)
- MISONO(일본식, 한국인경영, 020-386-8959)
- FURUSATO(일본식, 한국인경영, 020-374-8506)
- Hankook Restaurant(한식, 020-272-0292)
- PANDA(중국식, 020-221-3018)

○ 기타 식당정보

- www.nationaudio.com/News/DailyNation/whatson/current/restaurants.htm 참조

아. 관공서 관행

행정 체계는 과거 영국식민지 시절부터 제도나 형식을 영국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케냐의 관공서는 2002년까지 이른바 대표적인 권위주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대부분 민원서류 및 행정처리가 매우 늦고 전산화가 늦어 행정 중복, 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서비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급행료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키바키 대통령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 근무자들의 대민 서비스 교육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 감독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잔존하는 급행료 제도들이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참고로 관공서는 주로 매일 오전 10:00~10:30분까지 Tea Break(차를 마시는 시간)라는 관행이 있어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다.

점심시간(13:00~14:00)에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며 특히, 매주 금요일은 주로 오전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한 일들을 처리할 때는 이런 시간대를 피할 필요가 있다.

자. 공휴일**1) 2011년도 공휴일 일정표**

New Year's day(새해)	1월 1일
Good Friday	4월 22일
Easter Monday	4월 25일
Labour Day(노동절)	5월 1일
Madaraka Day(정부수립일)	6월 1일
Kenyatta Day(초대대통령 기념일)	10월 20일
Independence Day(Jamhuri Day, 독립기념일)	12월 12일
Christmas(성탄절)	12월 25일
Boxing Day 12월 26일	12월 26일
*Idd Ul Fitr(라마단 금식종료일)	유동적

주: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함

2) 출장 지양기간

부활절 주간(4월 중) 및 연말 연시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준비

케냐는 몸바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로 일교차가 다소 심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반면, 낮에는 햇살이 따갑고 기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적도 밑에 위치해 연중 기온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나 몸바사를 제외한 고지대의 경우 7~9월 중에 는 춘추복, 나머지 기간은 하복 및 춘하복이 적당하다. 평상복은 반팔과 긴팔을 동시에 준비 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낮은 햇살이 강해 선크림 등을 바르는 게 좋다. 몸바사 지역은 열대 지역으로 하복을 준비하면 된다.

2) 여행여건

□ 치안

케냐의 치안은 날로 악화되어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여행객에 대한 권총강도도 간혹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야 하고 현금 등은 과도하게 지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혼자보다 그룹으로 이동 시 보다 안전하다. 최근 대사관 직원이 권총강도에 납치되어 차량 등을 탈취당한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고, 주택지를 침입한 권총 강도가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강도를 만났을 경우 상대를 해치기보다 금품 탈취가 목적이므로 절대 반항하지 말아야 안전하다.

□ 택시

가급적 호텔택시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주소가 P.O. BOX로 되어 있어 가능한 방문하는 사무실이나 지역의 실제위치 및 주소를 확인해야 찾기가 편하다. 특히, 주요 건물 이름과 거리 이름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료는 정액제가 아니므로 반드시 승차 시에 가격을 흥정한 후 탑승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의 기본요금은 200실링 부터 시작된다.

□ 응급

응급 시에는 가능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의료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AIDS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지역을 커버하는 경비행기 응급수송시스템으로 AAR(Africa Air Rescue) 서비스가 있으며, 자동차 사고 등 위급할 때를 대비하여 가입을 권장하며, 연간 가입비는 100~ 200달러 정도이다.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종합병원응급실

- NAIROBI HOSPITAL: TEL.722160 EXT. EMERGENCY
- AGA KHAN HOSPITAL: TEL. 740000

○ 앰بول런스 요청

- ST. JOHN AMBULANCE: TEL. 22396/24066
- FLYING DOCTORS SERVICE: TEL. 501301/501280

- 야간약국
 - KENMART PHARMACY IN KENYATTA HOSPITAL 726148
 - NAIROBI HOSPITAL
 - AGA KHAN HOSPITAL

이외에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어 가능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기증세가 있는 경우 즉시 말라리아 검사 실시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

□ 팁 관행

공식적으로 팁 관행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공항, 호텔의 경우 짐 한 개당 1달러 이내 혹은 현지화 100실링 정도가 적당하다. 식당에서는 약 음식값의 2~3% 정도가 적당하며 팁은 전체 금액이 3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 식수

케냐의 수도물은 식수로 부적격하니 반드시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살모넬라 균에 의한 급성이질 등 현지수인성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식당 및 호텔에서라도 미네랄 워터를 별도 주문해야 하며 1리터당 평균 2~3달러 정도이다. 슈퍼에서는 평균 1달러 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이발소

이발은 한국보다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이며 주요 고급 호텔에 이발소가 있다. 현지 인도인 이발사의 경우 현지화600실링 (약 U\$8) 전후이며, 중국 미용사의 경우500실링(약 U\$6) 정도이다.

□ 구두닦이

시내 거리 및 일부 호텔 로비에 구두닦이들이 있으며, 요금은 약 50실링(미화 약 0.7달러) 전후이다.

3) 쇼핑

□ 물가

케냐의 경우 외국인의 생활물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 대비 물가수준은 공산품의 경우 2~3배 비싼 편이다. 이는 높은 물류·금융 비용, 관세(35% 이상 및 특소세), 부가세 16% 등에 기인한다. 호텔 내 식사와 경우 1인당 25달러 선이며 포도주 등을 곁들인 경우 35달러 이상이다.

□ 쇼핑장소

쇼핑몰은 시장여건상 발달되지 않았으나 나이로비지역에 주요 쇼핑몰로 3개 정도가 있고 백화점은 없다. 주요쇼핑몰은 Sarit Centre, Yaya Centre, Village Market 등이다. 최근 체인형 슈퍼마켓이 대형화되는 추세로 많은 수입상품이 이들 체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주요 슈퍼마켓 체인은 Uchumi와 Nakumat 등 2개사가 있다. 이외에 현지인들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장으로 City Market과 Hawkers Market이 있다.

□ 특산품

케냐의 경우 과거에 상아 등이 거래된 바 있으나 현재는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외 주요 특산품은 케냐 커피(블루 마운틴 브랜드 커피가 한국에 진출하고 있음) 및 홍차, 흑단 장신구(마사이족 형상 등) 및 조각, 귀금속, Soft Stone 조각물, Batik(아프리카 풍속을 캔버스에 그려낸 그림으로 유럽인이면서 아프리카인과 결혼한 Heidi Lange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함) 등을 들 수 있다.

□ 유용한 웹사이트

- 케냐웹: <http://www.kenyaweb.com>
 - 케냐 역사, 문화(시설) 배경, 가볼 만한 곳, 영화관 등 종합정보 수록
- Africa online사 홈페이지: <http://www.africonline.com>
 - 아프리카 전반적인 정보, 국별 정보, 문화, 시사정보 등을 수록

카. 유용한 연락처

1) 현지 관공서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상세정보
Ministry of Finance	T:(254-20)252299 F:(254-20)219365	Mr. David Mwiraria(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t'l Co-operation.	T:(254-20)318888 F:(254-20)344333	Mr. Ali Makwere(Minister)
Ministry of Home Affairs & National Heritage.	T:(254-20)318727 F:(254-20)240066	Hon. Moody Awori(Minister)
Ministry of Trade & Industry	T:(254-20)315049 F:(254-20)310983	Dr. Mukhisa Kituyi(Minister)
Department of Defense Headquarters	T:(254-20)2721100 F:(254-20)2725854	Mr. Joseph Kibwana (Chief of General Staff)
Attorney-General	T:(254-20)227461 F:(254-20)2720263	Mr. Amos Wako
Ministry of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T:(254-20)252299 F:(254-20)218475	Prof. Anyang' Nyong'o

2) 한국기관

기관명	위치	전화/팩스번호	상세정보
대사관	Anniversary Tower 15층	(254-20)220000 (휴일긴급연락처- (254-735)831506)	대사: 이한곤 1964년 개설 근무시간: 월-목요일, 08:30-16:00 금요일: 08:30-14:00 점심시간: 12:30-14:00, 토.일휴무
KOTRA 나이로비KBC	International House 2층	254-20-228928 (휴일긴급연락처 : 254-722-518558)	관장: 나창엽 1969년 개설 근무시간: 월-금요일, 07:30-16:30

3) 지상사 및 현지진출 기업

삼성전자	파크랜드	254-20-273-0434~8	지사장(이종오)
LG전자	리버사이드	254-20-445-1757	지사장(나원우)
(주)대우인터내셔널	International House 5층	254-20-316108/9	지사장(하판영)
한국기업	Safari Park Hotel 환성가구 Kenko 여행사 Sarang Africa여행사	254-20-823319/20 254-20-213122 254-20-2719858 254-20-3633000	대표(노영관) 대표(조동봉) 대표(김충학) 대표(장재영)

4) 기타(참고: 국가코드 254, 나이로비 코드 20)

경찰기관	CENTRAL POLICE STATION	222222~5
	KILIMANI POLICE STATION	2722222
	MUTHANGARI POLICE STATION	4442800
	KASARANI POLICE STATION	803310
	MUTHAIGA POLICE STATION	3762611
	INDUSTRIAL AREA STATION	557945,558393
화재 시	FIRE STATION	222181/2
앰불런스 요청	ST. JOHN AMBULANCE	210000, 0721-225285
	FLYING DOCTORS SERVICE	501280
종합병원 응급실	NAIROBI HOSPITAL	2722160 Ext. Emergency 0722-204114/5, 0733-639301/2
	AGA KHAN HOSPITAL	3740000 - 3740012
	M.P.Shah Hospital	374-2763~7
야간약국	KENMART PHARMACY (KENYATTA 병원 내)	2726148
	NAIROBI HOSPITAL	2714400
	AGA KHAN HOSPITAL	3742531
차량 고장 시	3S Auto(한국인 운영)	4443880
	AUTOMOBILE ASSOCIATION OF KENYA(A.A.K)	2720382/2720383
각종 고장 신고	전화 고장신고	987
	전기	주간: 225352/3742742 야간: 3742742/225352
	수도	2723103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MOMBASA PENNY PROFIT STORE (MPPS)	766534/762577

타. 관광명소

사파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케냐의 관광산업은 제1의 외화 수입원이자 약 12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 산업 중 하나이다.

1) 시내 관광명소

나이로비 시내 인근 관광명소로는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뱅공원(국립박물관 내), 민속촌인 Bomas of Kenya, Out of Africa로 유명한 Karen 박물관을 들 수 있다.

2) 시외 관광명소

□ NAKURU 국립공원

나이로비로부터 약 160km 지점에 위치, 도로 상태도 양호하고, 승용차편으로 3시간(편도) 소요되며,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 삼아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NAKURU 호수에 Flamingo(홍학)이 집단 서식하고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공원 내에 위치하는 호텔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뷔페식으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다(국립공원 입장료: 외국인 60달러)

□ MOUNT KENYA

나이로비로부터 약 250km 지점에 위치, 도로 상태가 양호하며 승용차편으로 3시간(편도) 정도 소요된다. MOUNT KENYA 언저리에 위치한 호텔 및 방갈로 시설은 최고급으로 외국 귀빈의 주재국 방문 시에도 자주 이용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정치인, 부호들 중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 등산도 가능하며 만년설을 즐길 수 있다. (산 높이 5,199m, 1박 2일 Full Board 숙박료는 1인당 300달러 수준임)

□ MOMBASA

나이로비로부터 약 490km 거리에 위치, 정기 항공노선이 매일 수회씩 운행하고 있으며 비행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자동차편인 경우 약 8~9시간(편도)이 소요되나 도로 사정이 나빠 위험한 실정이다.

운행은 나이로비에서 몸바사 항발은 월, 화, 목, 금 이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 비행은 화, 수, 금, 일 주 4회 운행한다. 통상 NAIROBI에서 오후 7시, 몸바사 에서도 오후 7시에 출발하므로 오후 6:30까지는 기차역에 도착해야 한다. 여행 시간은 약 12시간 소요된다.

몸바사는 인도양 상에 있는 KENYA 제1의 항구도시로서 야자나무 사이로 길게 뻗은 모래사장, 맑은 물, 싱싱한 생선 등 장기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관광지이며 고급 호텔, 방갈로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MOMBASA로부터 자동차로 1~2 시간 해변을 따라 여행 시 낚시, 수상스키 등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곳도 많다.

□ AMBOSELI 국립공원

나이로비로부터 약 350km 거리에 위치, NAIROBI-NAMANGA(탄자니아 국경)까지는 도로 상태가 양호하나 NAMANGA-AMBOSELI까지는 비포장 자갈길로 승용차 이용은 불가능하며, Four Wheel Drive가 필수적이다.

소요시간은 5시간(편도), KILIMANJARO 산과 정상의 만년 설을 구경할 수 있고 아프리카 특유의 SAFARI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지로 평가된다. (눈과 숲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동물들이 집단 서식하는 곳)

여행사를 통하여 여행할 경우 1박 2일, 4인 이상 단체기준 Full Board로 1인당 150~200달러 수준이다. 외국인인 250달러 정도이다.

□ MAASAI MARA 국립공원

나이로비로부터 약 380km 거리에 위치하며, 2,100m의 고지대로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초입으로 다양한 동물 사파리를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특히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의 동물 이동이 탄자니아로부터 마사이마라로 이동하여 더욱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도로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자동차 여행의 경우 Four Wheel Drive가 필수적이다.

단체가 아닌 경우 매일 월슨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사자 등 각종 동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모습과 마사이족 생활상을 볼 수 있다. 여행을 통해 여행할 시 4인 이상 단체 기준, 1박 2일 Full Board로 1인당 250달러 정도이다.

3) 그 외에도 가볼 만한 곳

□ 사파리파크 야생동물 바비큐 식당

사파리파크 내에 야생동물을 별미로 시식해 볼 수 있는 Nyama Choma 식당이 있다. 사슴, 영양, 얼룩말고기, 악어고기 등의 숯불구이를 맛볼 수 있으며, 식사 중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사파리 캣' 댄스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식비는 1인당 약 미화 17달러 정도이다.

□ 나이바샤 국립공원

나이로비에서 2시간 주행 거리이며, Boat Safari를 즐길 수 있다. 특히, Crescent Island 를 거닐며 하마 등의 야생동물 사파리를 할 수 있다.

4) 사파리 관광 시 유의사항

SAFARI 관광 시 쌍안경 또는 망원경의 휴대가 바람직하며 대부분 고지대이므로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는 점을 감안, 두꺼운 복장을 휴대함이 좋다. (사파리는 아침 새벽 6시 및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야생동물들이 어느 순간에 공격할 지 모르므로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절대 금지사항이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나이로비 국제박람회 (Nairobi International Trade Fair, ASK)

- 개최국가/도시: 케냐
-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1901 년
- 개최기간: 2011 년 9 월 26 일-10 월 2 일
- 전시장: Jamhuri Park Show Ground
- 주요참가국: 케냐, 부룬디, 보츠와나, 벨기에, 중국, 칠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영국, 남아공, 한국 등
- 전시분야: 종합품목, 가정용품, 가축, 피혁, 모피, 고무, 플라스틱, 공예품, 공작기계, 금속산업, 기계류, 농업.임업.축산, 목재가공, 미술.골동품, 석재.광물, 섬유.직물, 소비재, 실내, 외장식, 인테리어, 유리.도자기, 의류, 패션, 약세사리, 화장품.미용용품
- 주최기관: Nairobi International Trade Fair

□ 나이로비 국제 북페어 2011 (Nairobi International Book Fair 2011)

- 개최국가/도시: 케냐/나이로비
-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1997 년
- 개최기간: 2011 년 9 월 15-18 일
- 전시장: Sarit Centre Expo Centre
- 주요참가국: 케냐, 영국, 우간다, 탄자니아, 인도
- 전시분야: 서적.출판물, 인쇄.출판.종이
- 주최기관: Kenya Pulbishers Association
- 전시품목: 주요 학교 교재, 문화. 정치. 사회관련 출판물, 해외 수입서적, 주요 현지 작가작품등이 전시됨.

□ 동아프리카 자동차부속품 (Autoparts East Africa) 전시회

- 개최국가/도시: 케냐/나이로비
-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2007 년
- 개최기간: 2011.07.07 ~ 2011.07.09 (격년 개최)
- 전시장: Kenyatt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 주요참가국: 중국, UAE, 인도, 독일, 영국, 이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등
- 전시분야: 교통, 설비산업, 엔지니어링, 자동차.이륜차
- 주최기관: Seeco East Africa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케냐 정부 통합 사이트: <http://www.kenya.go.ke>
- 케냐 비즈니스 디렉토리: <http://www.nationmedia.com/directory/home/index.asp>
- 케냐 통신공사 (Telkom Kenya) : <http://www.telkom.co.ke>
- 케냐 전력공사 (Kenya Power & Lighting Co.) : <http://www.kplc.co.ke>

- 케냐 Kenya Wildlife Service : <http://www.kws.org> (자연보호관련 기관)
- 케냐 정보통신위원회 사이트: <http://www.cck.go.ke>

□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케냐 투자진흥청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http://www.investmentkenya.com>
- 케냐 차(TEA)개발공사 (The Tea Board of Kenya) : <http://www.teaboard.or.ke/>
- 케냐 옐로페이지 (Yellow Pages) : <http://www.yellowpageskenya.com>

□ 금융기관, 투자회사

- 케냐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Kenya) : <http://www.centralbank.go.ke>
- 아프리카상업은행 (Commercial Bank of Africa) : <http://www.cba.co.ke>
- 케냐 상업은행 (Kenya Commercial Bank) : <http://www.kcb.co.ke>

□ 언론기관

- 케냐 일간지 Nation Newspapers 홈페이지 : <http://www.nationaudio.com>
- 케냐 일간지 East African Standard 홈페이지 : <http://www.eastandard.net>
- 케냐 국영방송 Kenya Broadcasting Corporation 홈페이지 : <http://www.kbc.co.ke>
- 케냐 주간지 The East African 의 홈페이지 :
- <http://www.nationaudio.com/news/EastAfrican/current>

□ 기타

- 동아프리카 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 <http://www.eac.int/>
- 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COMESA) : <http://www.comesa.int/>

동아프리카 지역은 인터넷 사정이 열악하니 에러가 날 경우 다시 시도해야 한다.